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Logo)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온라인 뉴스 인용과 프레임이 뉴스이해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중심으로

201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최 성 인
온라인 뉴스 인용과 프레임이 뉴스이해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뉴스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은 기존의 뉴스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게 되었다. 온라인 뉴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온라인 뉴스 플랫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종속형 뉴스와 순수 온라인 기반 사이트인 독립형 뉴스 생산자들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하지만 신문 및 방송과 같은 기존 뉴스 매체에 비해 구조적 및 경제적 제한이 있는 독립형 뉴스 사이트 제작자들은 익명 네티즌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인용하는 간접적 취재방식을 이용하여 뉴스 안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뉴스 기사들은 실제로 관련한 바, 익명의 네티즌이 인용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간접적 취재방식이 이용자들이 기존에 중요시한 뉴스 가치에 벗어나 뉴스 이용자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익명 네티즌과 같이 새로운 뉴스 인용 정보원의 효과는 그 네티즌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뉴스의 프레임에 따라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더해 인용과 프레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이용자에게 공극적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용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여도로 인해 효과가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적용하여 관여도와 뉴스 속성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에 대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에 2x2x2(프레임 x 인용 정보원 x 인용 메시지 품질) 실험처치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실험 처치된 기사를 읽힌
후에 설문을 통해 이슈에 대한 관여도,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 정도를 측정했다.

첫째로 관여도를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주 효과는 뉴스이해에서 발견되었으며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에 의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품질의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가 저품질에 노출된 이용자에 비해 뉴스이해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인용 정보원,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라 관여도와 뉴스 속성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여도와 메시지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의 차이가 뉴스 평가에서 유의미했다.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고품질의 메시지에 노출 되었을 때 뉴스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저품질의 메시지에 노출 되었을 때에 비해 평가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에 의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뉴스평가에서 일부 적용 가능하였다. 하지만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가 인용된 정보원에 따라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효과가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익명 네티즌, 메시지 품질, 프레임,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교화 가능성 모델
학번 : 2011-20156
목차

제 1 장 문제제기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4
  제 1 절 정서적 반응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 ................................................................. 5
  제 2 절 뉴스 이용에서 인용과 프레임 효과 ....................................................................... 7
    1. 뉴스 이용에서 인용의 효과 ......................................................................................... 7
    2. 뉴스 이용에서 프레임의 효과 ............................................................................... 15
    3. 뉴스 이용에서 인용과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 .................................................... 19
제 3 장 뉴스 이용에서 관여도, 인용, 프레임 ........................................................................... 20
  1. 뉴스이용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 ............................................................................. 20
  2. 뉴스이용에서 관여도와 프레임 .............................................................................. 25
제 3 장 연구방법 ....................................................................................................................... 28
  제 1 절 연구 설계 및 절차 ................................................................................................. 28
    1. 실험 디자인 및 절차 ............................................................................................... 28
    2. 실험처치 .................................................................................................................. 33
  제 2 절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 36
    1. 주요 변수 신뢰도 측정 ............................................................................................. 36
    2. 주요 변수 측정 항목 ................................................................................................ 37
    3.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 39
제 4 장 연구결과 ....................................................................................................................... 40
  제 1 절 실험 조작화 검증 .................................................................................................. 40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 42
    1.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의 주 효과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 .......... 42
2.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43
3.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47
4. 관여도와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51

제 5 장 연구결론 및 논의..........................................................................................53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53
제 2 절 연구합의.....................................................................................................55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57

참고문헌..................................................................................................................59

<부록 1> 내용분석 개요.........................................................................................67
<부록 2> 실험처리 기사..........................................................................................71
<부록 3> 설문지 양식..............................................................................................87
<부록 4> 집단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94
<table>
<thead>
<tr>
<th>표 목차</th>
</tr>
</thead>
<tbody>
<tr>
<td>&lt;표 1&gt;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 실험처리 기사 ................................................................. 30</td>
</tr>
<tr>
<td>&lt;표 2&gt; 실험 참가자 인구사회학적 분포 ................................................................................. 31</td>
</tr>
<tr>
<td>&lt;표 3&gt;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 32</td>
</tr>
<tr>
<td>&lt;표 4&gt;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속성 실험처리 ..................................................................... 33</td>
</tr>
<tr>
<td>&lt;표 5&gt; 실험처리 인용 메시지 예시 .......................................................................................... 35</td>
</tr>
<tr>
<td>&lt;표 6&gt; 주요 변인 신뢰도 측정 ................................................................................................. 37</td>
</tr>
<tr>
<td>&lt;표 7&gt; 정서적 반응, 뉴스이해, 뉴스평가 상관관계 .................................................................... 39</td>
</tr>
<tr>
<td>&lt;표 8&gt; 기사 조작화 t-검정 결과 ............................................................................................... 41</td>
</tr>
<tr>
<td>&lt;표 9&gt;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뉴스이해 ............................................................ 44</td>
</tr>
<tr>
<td>&lt;표 10&gt;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뉴스평가 .......................................................... 45</td>
</tr>
<tr>
<td>&lt;표 11&gt;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정서적 반응 ....................................................... 46</td>
</tr>
<tr>
<td>&lt;표 12&gt; 정보원, 메시지 품질, 판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 ........................................... 48</td>
</tr>
<tr>
<td>&lt;표 13&gt; 정보원, 메시지 품질, 판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평가 ........................................ 49</td>
</tr>
<tr>
<td>&lt;표 14&gt; 정보원, 메시지 품질, 판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적 반응 ...................................... 50</td>
</tr>
<tr>
<td>&lt;표 15&gt; 프레임과 판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 .......................... 52</td>
</tr>
<tr>
<td>&lt;표 16&gt; 온라인 및 종합뉴스 섹션 별 정보원 인용 .................................................................. 67</td>
</tr>
<tr>
<td>&lt;표 17&gt; 온라인 및 종합 뉴스 학교폭력 관련 정보원 인용 ....................................................... 68</td>
</tr>
<tr>
<td>&lt;그림 1&gt; 연구모형 ................................................................................................................. 28</td>
</tr>
</tbody>
</table>
제 1 장 문제제기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언론과 새로운 뉴스 공급자들이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여러 방식으로 뉴스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형 뉴스 제공자는 뉴스 제작의 차원에서 기존 언론사의 종속형 뉴스 제공자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수 많은 뉴스 사이트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생산자들 간의 시간 및 콘텐츠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뉴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 유통되는 다양한 뉴스 제작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현재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뉴스와 방문자는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인용하는 경우가 종속형 뉴스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서 뉴스를 인용하는 새로운 뉴스 제작관행이 뉴스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이 온라인 게시물을 기사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게 된 것은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뉴스 댓글 공간에 이용자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서부터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이용자의 실시간 의견표명이 온라인 뉴스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자는 게시판과 뉴스 댓글 공간은 물론 트위터(Twitter), 블로그, 및 온라인 게시판과 같은 여러 종류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사회적 이슈까지 자신의 의견, 경험, 그리고 평가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뉴스 제작자는 직접적인 취재를

1 오프라인 종속형 뉴스는 기존 신문사를 기반으로 한 뉴스 협력가이며, 독립형 뉴스의 경우 순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뉴스 협력가. 두 종류의 뉴스 협력가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협력의 내용과 협력 평가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상희, 2004).

2 온라인 포털 사이트 뉴스캐스트(Naver NewsCast)에 게시된 기사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간단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제로 온라인에서 인용되는 정보와 메시지 예시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 경험, 평가를 뉴스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뉴스 내용에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논평이나 반응이 담겨있을 경우, 뉴스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마치 중요한 인터뷰 대상인 것처럼 취급되어 있거나, 뉴스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는 평론가처럼 인용된 경우도 있으며, 이에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이 여론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한 이용자가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할 것인지 알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정보원을 접촉해서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과 열람을 통해서 이용자 반응을 수집해서 기사를 작성한 기사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품질이 낮은 뉴스를 접한 이용자들은 뉴스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내부적인 한계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뉴스를 생산하면서 충분치 못한 수치의 정보원과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서 뉴스의 가치가 저하되는 저가치 제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준웅, 최영재, 2005).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인용한 내용은 전통적인 전문가 인용이나 시민의 반응에 대한 인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면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기존 뉴스 매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안과 직접 관련된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함으로써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인터넷 게시글이 뉴스에 일종의 정보원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 즉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인터넷 언론에서 ‘나’와 같은 일반인의 소리로 들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생동감(vividness)이 높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자 정보원이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이용자에 의해 느껴지는 거리감을 줄이고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용된 익명 네티즌과 메시지는 뉴스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에 초점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부각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화적 프레임과 같이 사건의 피해자나 개인에 초점이 되어 있는 기사에 네티즌이 인용되거나 감정적인 에피소드가 제시 되었을 경우 주제적 프레임에서 인용되었을 때에 비해 평가가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 프레임에 노출되었을 때, 기대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뉴스에 인용된 네티즌과 그들에 제시한 인용문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계시자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이성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병렬된 분석이 아닌 감정적인 반응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다. 때로 이런 글들 때문에 주어진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이라도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그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 뉴스가 중요하고 정보적인 기능을 바라는 이용자들에게는 인터넷 게시글의 감정적인 말들이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뮤직의 네티즌의 감정적인 글이 뉴스 이용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한다. 하지만 정서적 반응 역시 뉴스의 내용과 이용자의 관여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의 종류, 인용된 정보원의 의명적 인터넷 이용자 여부, 인용된 인터넷 게시글의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 뉴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 하에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공극적인 목적은 온라인 뉴스 기사에 인용되는 대상과 메시지에 따라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뉴스 이해와 평가가 달라지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2x2x2(프레임 x 인용 x 인용 메시지)로 실험 처리하여 이용했다.

뉴스 이용자의 관여도가 중요한 중개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적용하여 뉴스 이용자가 학교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관여도가 특정 프레임에서 인용된 대상과 메시지에 따라 뉴스 이해와 평가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중심경로를 통해 메시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원과 같은 단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특정 프레임 내에서 접하는 인용에도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적용되는지 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이용자가 온라인 뉴스를 접했을 때 뉴스의 맥락적(contextual) 요소인 인용과 프레임과 개인의 인지적(cognitive) 요소인 이용자 관여도가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으로 보고자 한다. 이슈에 대한 의견 및 태도 형성과 관련하여 인용된 정보원, 인용된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에 대해 연구가 되어 왔지만, 뉴스에 제공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인용과 프레임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뉴스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뉴스에 인용된 정보원과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 그리고 프레임과 같은 다양한 수사적 기법(rhetorical devic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정보원, 메시지 품질, 그리고 프레임에 따른 주 효과에 대해서 논의 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인용과 프레임 사이에 나타나는 생동감과 유사성 등의 비슷한 속성이 서로 연결되면서 효과가 강조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용자의 인지적인 자원인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중재되었을 때 전반적인 효과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적용하여 관여도에 의해서 뉴스 이해와 평가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모델을 바탕으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중심경로를 통해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며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들은 주변경로를 통해 뉴스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프레임, 인용, 그리고 메시지 품질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관찰 되었는지 살펴본 후,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관여도에 따라 뉴스 속성이 이용자의 뉴스 이해와 평가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것이다.

셋째,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메시지 품질, 정보원, 그리고 관여도와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에 머물렀지만, 이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도 관여도의 조절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추가적으로 프레임과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 여부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제 1 절 정서적 반응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

뉴스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이용자가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또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자와 행동 및 인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이어져 왔으며 정서적 반응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뉴스를 접한 이용자들은 그 내용과 형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뉴스의 프레임, 인용, 그리고 메시지의 차이에 의해서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에 대한 의견을 성립하는 과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감정의 유발은 관여에 의한 경험(experience of involvement)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서적 반응에 의해서 다른 사회적 요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Peters, 2011). 이는 곧 뉴스를 통해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은 뉴스이해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디와 그의 동료들(Bodie, et al., 2011)은 정서적 반응이 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슈에 대한 정보 추구 욕구가 증가하면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서적 반응이 적정선을 넘었을 경우, 이용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이 곡선(curvilinear) 형태로 이용자의 메시지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시지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복합성과 정서적 반응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바탕에 의한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정서적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용자가 정보 처리에서 인지적 자원의 소비를 증가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뉴스평가에 정서적 반응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과거에 이분법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뉴스의 품질과 유용성을 평가 할 때 감성과 이성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설명되었으며, 이성적인 뉴스는 고품질의 뉴스로 여겨진 반면 감성적인 뉴스는 저품질의 뉴스로 여겨졌으며, ‘데카르트식 이원론(Cartesian dualism)’을 기반으로 감성과 이성을 두루하게 구분하여 뉴스를 평가하였다. 이는 감정 및 정서를 중요한 사회적인 요소가 아닌 단순히 이용자의 신체적인 반응으로 볼게 정의했기 때문이다(Peters, 2011). 이분법적인 기준에 동의하게 되면서 감성 및 정서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뉴스에 대한 편향된 평가는 정서적인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 증명 되었으며 알판과 나비(Arpan & Nabi,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뉴스에 의해 유발되는 분노의 감정이 뉴스에 대한 신뢰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에 더해 분노를 느낀 이용자는 뉴스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 및 정서가 증가한 이용자는 자신이 접한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검증 되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뉴스 채널들이 형성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뉴스가 전달되면서, 기존에 중요한 뉴스 가치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으며 정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변화하는 뉴스 가치관이 온라인 뉴스 생산에도 반영되고 있다. 뉴스 평가에 있어서 감성적인 뉴스의 평가는 궁정적으로 변하면서 뉴스 생산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뉴스에 감성적인 요소들을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성적인 뉴스가 더 이상 저품질의 뉴스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뉴스이해와 평가에 있어서 정서적 반응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의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제 2 절 뉴스 이용에서 인용과 프레임 효과

1. 뉴스 이용에서 인용의 효과

1) 뉴스에서의 인용 정보원

뉴스에서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은 뉴스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브로시어스(Brosius, 1999)에 의하면 뉴스에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은 일종의 ‘예시’를 드는 것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시각을 보여주는 관계자 또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짧은 인용’이라고 정의했다. 뉴스에 인용된 정보원은 (1) 뉴스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뉴스에 대한 신뢰도 추가, (3) 불확실함 감소, (4) 다양한 관점 제공, (5) 편향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Dimitrova & Stromback, 2012).


기존 뉴스 매체에서 전문가, 엘리트, 그리고 공적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이 뉴스 생산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 방송과 온라인 뉴스에서 일반인을 뉴스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증가했다. 르페브르와 그의 동료들(Lefevere, et al., 2011)은 ‘전문성 및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띄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선택된 정보원을 ‘대중적 예시(popular exemplar)’라 하였으며, 대중을 제시하는 경우와 정치인 및 전문가를 제시한 경우에 따라 뉴스 이용자의 의견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찰했다. 그러나 결과, 전문성을 가진 정보원에 비해 대중적 예시가 인용되었을 때 이용자의 의견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를 인용했을 경우에 비해 대중적 예시를 인용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이 대중적 예시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메시지 설계에 조심스러워야 할 것을 주장했다.

대중의 의견 형성에 있어서 일반인 등의 비공적인 정보원의 긍정적인 역할이 중요할 수 있지만, 비공적인 정보원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중요시 되었던 뉴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정보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러와 커피어스(Miller & Kurpius, 2010)에 의하면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나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기사에 제시되는 정보원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비공적인 정보원에 비해 공적인 정보원을 신뢰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 들어 온라인 뉴스에서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을 인용하는 것이 새로운 취재관행이 되면서 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밀러와 커피어스(Miller & Kurpius, 2010)는 인용할 정보원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의 힘, 전문성의 기대, 정보원 접근성, 등의 여러 구조적 및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생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관행은 기자가 정보원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마감시간에 맞게 정보원이 누락되거나 익명의 정보원이 사용되는 문제점과 연관된다(이동근, 2004). 신문과 방송 뉴스와 같은 기존 뉴스와 온라인 뉴스 간에 존재하는 경제 및 구조적 차이는 온라인 뉴스 생산에 이러한 관행이 고착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뉴스 기자의 경우 구조적으로 기존의 뉴스 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정보원에 접근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

3. 이 연구는 방송에서 제시되는 대중적 예시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대중적 예시가 온라인 뉴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뉴스에 인용되고 있는 네트즌은 익명의 임의적으므로 선택된 인용 정보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즌이 인용된 온라인 뉴스 기사를 개인적으로 관찰한 바, 방송 뉴스에서 인용되는 대중과 비슷한 형식의 영향을 미친다.
정보원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통 뉴스 매체에 비해 온라인 뉴스 매체는 가용 인원이 적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모두 취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더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통 뉴스 매체에 비해 온라인 뉴스에서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 기존 뉴스 매체에 비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원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의 발달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보원 관리는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그 관리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2012).

최근 소셜 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포함한 익명의 네티즌들을 뉴스에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일종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떠나지 않는 대중적 에시로서 이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서 공적 정보원이 제공되지 않고 익명 네티즌이 인용되었을 때 뉴스이해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온라인 뉴스에서 인용되는 새로운 종류의 정보원이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2) 뉴스에서의 인용 예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 메시지를 이용자가 접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광고 효과, 그리고 뉴스 이용에서의 의견 및 태도 형에 대한 연구에서 관찰된 변수이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메시지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메시지 속성과 심리적인 상태의 상호작용, 메시지 속성 변화에 의한 효과, 그리고 메시지 속성 변화에 따른 영향과 심리적인 상태의 매개적 역할에 중점을 둔다(O’Keefe, 2003). 메시지가 구성되는 방식과 소구 유형에 따라 이용자가 메시지에 대해 느끼는 신뢰 혹은 매력은 이용자가 메시지를 통해 설득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규태, 마정미,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다양한 메시지 종류와 그 안의 속성들이 뉴스이해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한다.

메시지의 종류는 예시(exemplar)와 기저율 정보(base-rate in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는 실제적인 사례를 의미하며, 뉴스 이용자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뉴스 보도에서 자주 사용된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 예시와 반대로 ‘기저율 정보’는
메시지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와 수치를 제공하며,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유홍식, 2008). 예시와 기저율 정보 메시지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예시 이론(exemplification theory)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예시 이론에 따르면, 예시와 같이 실제적인 사례가 제공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기저율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에 비해 메시지의 생동감이 높아지면서 이슈 전달력이 향상된다고 본다(Zillmann & Brosius, 2000).


이 연구에서 하나의 메시지 내의 여러 속성들을 세분화 하여 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시나 기저율 정보 메시지의 구체적인 속성에 따라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이용자에 따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시나 관련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Yaros, 2006). 메시지에 제시된 정보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 따라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크게 메시지의 뉴스 가치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시지의 가치적 속성은 메시지 내에 뉴스 가치들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뉴스 메시지는 의견과 사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성, 완성도, 공평성 및 균형, 중립성이 유지되고 편향적이지 않은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한다(Hackett, 2008). 이러한 뉴스 가치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이용자의 정보 습득, 의견 형성,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저율 정보 메시지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예시에 비해
뉴스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예시의 경우, 실제적 사례를 제공하면서 객관적인 요소가 부각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은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 및 표현 양식 또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현적인 측면은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한 양식으로 제시되기를 의미하며, 설득 커뮤니케이션 및 메시지 결과 관련된 연구에서 비속어 사용 및 메시지의 정중함 정도에 따른 효과가 연구되었다. 격한 언어 또는 ‘반정대하는’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같은 내용이어도 메시지를 인식하고 받아 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중한 및 공손한 톤(civility)의 사용은 메시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 정중하지 않은 톤의 경우 비관적인 목소리와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조건으로 정의 하였다(Thorson, Vraga, Ekdale, 2010). 또한, 메시지의 주체와 거리감을 유지(distancing)하는 탐문적 전략을 이용하여 메시지의 주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과 자신을 확실히 구분하기도 한다(Snow & Anderson, 1987). 기저율 정보를 제시할 경우, 격한 언어나 감정적인 표현을 쓰기 어려운 반면, 예시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에서 격한 언어나 감정적인 표현을 쓰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메시지의 가치적 및 표현적 속성들이 집합되었을 때, 이용자가 지각하는 메시지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메시지가 제시된 뉴스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인용에 따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인용된 정보원과 메시지는 이용자가 뉴스에 대해 느끼는 신뢰에서부터 의견 형성까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의 메시지 속성들에 의한 정치 및 사회적 태도 및 효용성에 미치는 효과들이 관찰 되었다. 예시 이론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생성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이용자의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메시자가 누구의 입으로 통해 전달 되는지에 따라 이용자가 뉴스를 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메시지가 어떤 정보원에 따라서 전달되는지에 따라 이용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 및 이슈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펑과 맥조지(Feng & McGeorge, 2010)의 연구에서는 정보원 속성에 의한 효과가 메시지 속성들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정보원 속성과 메시지 속성의 상호작용이 이용자의 메시지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정보원 속성에는 전문성(expertise), 유사성(similarity), 선호도(liking), 믿음(trust)이 포함되었으며, 메시지 속성에는 공손함(politeness), 반응의 효능(response efficacy), 실현 가능성(feasibility), 확인(confirmation)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메시지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메시지 속성이 정보원 속성의 매개적인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속성이 정보원에 의한 효과에 매개적인 역할 하였을 때, 정보원 속성이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보다 유의도 수준이 더 높았다. 이 연구는 메시지와 정보원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보통 일반인 및 비공적 정보원의 경우 에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확률이 높으며, 전문가 및 공적 정보원의 경우 기저율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적인 정보원들의 생성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이수의 인식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삼용 가능성이 있다(D'Alessio 2003). 르페브르와 그의 동료들(Lefevere, et al., 2011)은 대중적 에시를 제공하는 일반인들이 공적인 정보원을 인용하였을 때 보다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방향 및 편향성에 따른 독립적인 효과 보다 누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문성을 뛰어 없는 일반인이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반인들이 인용되었을 경우, 메시지에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 그리고 지지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 일반인 정보원의 효과는 유사성(similarity)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유홍식(2009)은 신문 기사에서 일반인을 인용하여 이슈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보도 된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 개인들을 인용하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경험담과 같은 느낌을 심어주어 뉴스의 생동감(vividness)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생동감이 높아지면 이용자와 뉴스를 정보의 습득 및 이해가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공적 및 일반인 정보원이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정보는 이용자와 뉴스의 정보를 기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예시 이론에서도 언급된 생동감에 의한 효과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메시지에 의견이 추가 되었을 때 메시지의 생동감이 강화 되면서 뉴스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 되었다(Nisbett & Ross, 1980, Smith & Shaffer, 2000).

펠드맨(Feldman, 2011)의 연구에서도 의견이 강하게 표출 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이용자와 인식하는 편향성이 뉴스를 통한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했다. 뉴스에 대한 학습은 자유롭게 기억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질문하는 객관적 문제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인 메시지와 객관적인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들 사이에 지식 습득의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접해도 이용자와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와 반대로, 뉴스에서 접한 정보에 대한 기억(recall)을 시도하거나 뉴스에 제시된 이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뉴스가 생동적일 때 이용자는 메시지에 제시된 생동하고 비정형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가 높아 기억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다(Arpan, 2009; Brosius, 2003). 즉, 메시지가 생동있도록 이용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뉴스를 이해할 때 기존에 중요시하게 여겨왔던 뉴스 가치가 메시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해 맞받침 되었다. 유홍식(2008)에 의하면 예시로 이용된 메시지가 '질적으로 왜곡된 예시(qualitatively distorted exemplar)'일 경우, 내용이 극단적이거나 편향적일 수 있으며, 이를 접하는 뉴스 이용자와 이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왜곡된 메시지가
이용될 경우 메시지에서 이용된 정확한 기저율 정보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 네티즌과 감정적인 예시들이 이용되었을 때 뉴스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온라인 뉴스에서 익명 네티즌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인용한 것과 같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서 뉴스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인용되는 정보원과 메시지는 뉴스의 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문이 위기를 겪게 된 이유 중 소수의 정보원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신문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치 제공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온라인 신문 역시 제공된 정보원을 인용하게 되면서 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준웅, 최영재, 2005). 특히 온라인 뉴스의 경우 전통 뉴스 매체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으며, 뉴스에서의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 활용 등 직접적이지 않은 측면에 의한 정보원 활용이 신뢰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직도 뉴스 생산자 및 이용자들이 공적인 정보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필드맨(Feldman, 1984)의 연구는 정보원에 대해 이용자가 비슷하다고 인식할 경우,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대표성 휴리스틱(the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에 의해 사례를 제시하였을 때 이를 제시한 대상이 자신이 속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용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평가하게 되며, 정보원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같은 집단 속하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유홍식, 2008). 인용된 정보원에게 유사함을 느낄 때 이용자가 정보원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보원에 대한 평가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서적 반응의 경우, 객관성과 공평성이 부각된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감정적인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가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론에 따르면 전통 뉴스 매체인 신문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신문사의 역량의 한계에 의해 다른 매체에 비해 경쟁력 있는 뉴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정보원 인용 역시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준웅, 최영재, 2005). 저가치 제공은 기존 신문의 위기뿐만이 아닌 온라인 뉴스 가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원에 의해 정서적인 반응이 특별히 부각될 수 있다(Vettehen, Nuijten, & Peeters, 2008). 정보원에 의해 정서적 반응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메시지가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되는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생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일반인에 노출 되었을 때, 정서적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엘리트 정보원이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이용자에 의해서 그 감정의 표현이 의미 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정서가 예외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Pantti, 2010). 김슨과 질만(Gibson & Zillmann, 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예시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최대한으로 과장되었을 때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가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

인용된 정보원이 익명 네티즌이거나 인용된 메시지가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경우, 뉴스에 대한 생각값 및 감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용자가 이슈를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슈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나 편향적인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아 뉴스에서 제시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직 전통적인 뉴스 가치를 유지하려는 기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 네티즌과 감정적인 글로 호소할 경우, 뉴스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2. 뉴스 이용에서 프레임의 효과

1) 뉴스에서의 프레임

'뉴스 프레임(News framing)'은 뉴스에서 제공하는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결정 그는다. 프레임은 이슈에 대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이 정의되어 왔다. 드브리스(DeVreese, 2004)는 프레임을 일반적 프레임(generic frame)과 이슈 구체적 프레임(issue-specific frame)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일반적 프레임의 경우 주제적 한계를 초월하여 다른 주제들과 연관될 수 있는 프레임을 의미하며, 이슈 구체적 프레임의 경우 특정한 주제 또는 사건을 다루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도 메시지 중 메시지와 기저율 정보의 차이와 같이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생동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동적 정보(vivid information)는 감정적으로 홍미롭고,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슈에 대해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 및 공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생동적인 정보의 반대 개념은 흑미한 정보(pallid information)로 사전, 인물, 그리고 이슈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정하는 것이며, 이는 이용자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임증하지 못하므로 생동적 정보에 비해 이용자와의 거리감을 줄히기에는 한계가 있다(Kennamer, 1988; Nisbett & Ross, 1980). 일화적 프레임의 경우 생동적인 정보로서 인간적 홍미와 이슈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반면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프레임에 의한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프레임에 따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

5 아이엔거(Iyengar, 1987)는 각 프레임이 이슈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인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일화적 프레임의 경우 개인에게, 주제적 프레임은 구조적인 측면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를 이해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슈가 제시되었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이는 뉴스의 주제와 프레임에 따라 이용자가 뉴스를 읽을 때의 가독성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뉴스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스를 읽을 때 쉽게 혹은 어렵게 느끼지는 것은 뉴스의 생동감(vividness)과 연관될 수 있다.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은 생동감에 차이가 있으며, 생동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의 이용자의 정보 습득력 및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전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왔다. 생동적 정보가 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Nisbett & Ross, 1980) 외에 예시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 의하면 생동감이 높았을 때 이용자가 정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프레이와 이글리(Frey & Eagly, 1993)는 이용들이 생동감 있는 정보에 노출 되었을 때 메시지가 주창하는 바와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를 끌어내 메시지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화적 프레임이 이슈에 적용되었을 경우 주제적 프레임이 적용되었을 때의 비해 생동감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아이엔거(1991)에 의하면 일화적 프레임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여 이용자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화제적(topical), 비조직적(disorganized), 그리고 분리된(isolated) 이해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일화적 프레임과는 달리 이슈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아이엔거의 일화적 프레임 이용에 대한 논의를 따르다면, 일화적 프레임은 어려운 사안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이용자들이 사안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돕지만, 그 이해는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으며 특정 화제 및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 이슈에 대한 객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뉴스 정보에 대한 기억(recall)에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은 발켄버그와 그의 동료들(Valkenburg, et al., 1999)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인간적 홍미, 감동, 책임, 그리고 경제적 결과와 같은 네 개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았으며, 프레임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뉴스에 제시된 범죄 또는 경제 이슈 보도에 기재된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다룬 뉴스 중 인간적 홍미 프레임을 이용했을 때 정보에 대한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인간적 홍미 프레임은 사건, 이슈, 또는 문제를 제시할 때 개인의 이야기 또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뉴스에 서술적 특징을 살리는 것으로, 이는
일화적 프레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화적 프레임이 범죄 뉴스에 이용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뉴스 평가 측면에서도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이 미치는 효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 및 수치와 같은 기저율 정보(base-rate information)를 이용한 보도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유홍식, 2008). 일화적 프레임에 비해 주제적 프레임은 사례 및 예시보다 이슈와 관련된 기저율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주제적 프레임에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콜맨과 그의 동료들(Coleman, et al., 2011)의 연구에서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에 따른 이용자의 뉴스 선호도를 측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레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측정된 뉴스 선호도에 이유가 충분히 대한 종미, 연관성, 밀집, 중요성의 다섯 항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중요성과 연관성 등의 선호 요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화적 프레임에 비해 종미에 대한 평가가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레임에 의해서 이용자가 이슈와 관련된 정서적인 반응에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프레임에 의해서 유발된 정서적 반응은 이용자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휴리스틱(heuristic)을 이용해 처리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Kim & Cameron, 2011). 프레임에 의해서 유발된 정서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에 따라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는 높은 혹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는 높은 현상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있다(Small & Loewenstein, 2003). 일화적 프레임의 경우 곤경에 처한 개인에 대한 상황과 감정에 초점 되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확률 또한 높아 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로스(Gross, 2008)의 연구에서는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과 정책 의견 형성의 관계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이슈에 대해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이 적용 되었을 때,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이용자들에 비해 연민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다. 즉,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일화적 프레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레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 본 결과, 일화적 프레임은 이용자에게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슈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해력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평가 측면에서는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에는 큰 차이가 없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객관성과 정확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흥미가 떨어지며, 반대로 일화적 프레임의 경우 이용자가 뉴스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된 인용에서의 정보원과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이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주 효과 및 독립적인 효과를 관련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 <연구문제 1-3>을 제시한다.

연구문제 1-1: 뉴스에 인용된 정보원의 전문성은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뉴스에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은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일화적이거나 주제적인 뉴스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이 달라지는가?

3. 뉴스 이용에서 인용과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

기존 연구들에 따라 인용된 정보원과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검토되었으며, 이 세 개의 뉴스 속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독립적 효과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 사이에는 유사성과 생동감과 같이 검지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집합되었을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인용과 프레임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이다. 인용된 정보원,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뉴스 프레임은 여러 메커니즘(mechanism)이 연관되어 구성되며, 그 메커니즘에는
정보원 선택과 인용구의 선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DeVreese, 2005). 또한, 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정보원 인용 패턴에 관한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자가 선택하는 정보원과 인용구에 의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Kim & Weaver, 2003).

인용된 정보원과 메시지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프레임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이용자가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이 이슈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용되는 정보원 혹은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제적 프레임에서 이용자들은 객관적인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정보가 뉴스의 본문에 충분히 제시되기 때문에 인용된 메시지가 감정적인 것을 바랄 수 있다.

따라서,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의 전반적인 효과에 의한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대한 주 효과와 더불어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들이 속성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2>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뉴스에 인용된 정보원의 전문성,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 뉴스 프레임은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제 3 절 뉴스 이용에서 관여도, 인용과 프레임

1. 뉴스이용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

1) 뉴스 이용에서 이용자 관여도

이용자가 뉴스를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의 정보 취득 목적과 능동적인 뉴스 접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것이라는 ‘이용과 충족 이론’만으로 뉴스 정보 습득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무수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지적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메시지의 영향이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노출된 이후에도 이용자의 ‘주의(attention)’가 필요하다(McGuire, 1978; Lo & Chang, 2006).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보에 노출된 후에 그 안에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에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즉, 이용자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관여(involvement)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논의되었던 프레임, 인용 정보원, 그리고 메시지 품질은 이용자의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때 이용자의 관여도와 상호작용하여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제슨(Jensen, 2011)의 연구는 건강 관련의 특수한 주제의 뉴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를 습득하고 살아 하는 정도 혹은 감시(surveillance) 동기가 건강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갖는 정도와 뉴스의 요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용자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수동적 혹은 우연에

6 관여가 뉴스 이해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대 가치 모형(Expectation Value Model)을 기반으로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대상이 갖고 있는 태도나 믿음이 바탕이 되어 평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lmgree & Rayburn, 1982). 이용자가 사건에 갖고 있는 태도나 믿음은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접하는 매체 및 콘텐츠에 대해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한 정보 습득은 실제로 드물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보도 수를 증가하는 것은 지식 및 정보 습득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 욕구가 높은 이용자들은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관여에 따른 뉴스 이해는 주로 폭넓게 정의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용자의 의견 및 태도 형성 혹은 정치적 정보 습득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준웅과 카펠라(Rhee & Cappella, 199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관여 정도에 따른 정치 뉴스 정보 습득을 측정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지식의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라는 개념을 이용해 이용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정치에 관련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와 정치적 성향(ideology)을 총체적으로 관여로 정의하고, 뉴스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관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뉴스 소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세러도 또는 관여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정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앞서 검토된 이전 연구들의 경우 이용자의 관여에 따라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전체하여, 관여에 의해 정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존에 정보 습득 연구에서 추구했던 단순 직접적인 효과(simple direct effect)로부터 벗어났다. 이는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을 가진 이용자들이 추상적인 사회적 정보를 차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회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인지적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용자들에게 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Bodie, et al., 2011). 단순 직접적인 효과를 탈피하고 선택적 노출 이후에 나타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구체화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한 모델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주장하는 바는 개인이 사안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 및 관련성이 주제에 대해 인지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Petty & Cacioppo, 1979). 개인과의 관련성 및 관여도(involvement)가 높을수록 정교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교화는 구체적으로 두 개의 경로로 이루어진다. 중심경로(central route)는 개인적 관여도가 높을 때 정보를 정교화하거나 처리할 동기가 높을 경우 일어나며, 주변경로(peripheral route)는 관여도가 낮아 정보를 정교화 할 동기가 낮을 경우에 해당 된다(San Martin, Camarero, & San Jose, 2011).


특히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중심경로에 해당되는 메시지 품질에 따른 효과는 이용자가 메시지에 제시되는 내용과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이슈 관여도는 메시지의 특징들과 상호작용하며,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의견 및 메시지 질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Petty & Cacioppo, 1979). 즉, 메시지의 독립적인 효과 보다 이용자의 태도 및 관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용자의 관여와 정보에 대한 주의력(attention) 사이에 연관성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저(Roser, 1990)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에 대해 주의력이 증가하며, 메시지에 주의하다 보면 인지되는 메시지의 연관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의력에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모델의 주장에 따라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파브리가와 그의 동료들(Fabrigar, et al., 1998)의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메시지 내에 포함된 주장의 품질(quality)은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attitude)가 강할 시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인다고 했다. 주제에 대해 강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확실한 경우에 메시지의 주장이 절적으로 높았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보에 따른 태도 변화는 정보의 품질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은 메시지의 감정적 및 이성적 속성이 관여도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연구 결과에서 검증되었다. 플로라와 마이바흐(Flora & Maibach, 1990)의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메시지 기억(short-term message recall)이 메시지 속성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감성적인 메시지와 이성적인 메시지에 따라 메시지 기억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두 메시지에서 모두 메시지 기억 수준이 높았다.

스미스와 셰퍼(Smith & Shaffer, 2000)의 연구에서도 생동적인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이용자가 느끼는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가 주장에 대한 기억(argument recall)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가의 인지적 욕구는 주장의 품질(argument quality)과 상호작용하여 주장에 대한 기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치적 지식 습득에도 개인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등 관여도가 높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odge & Hamill, 1986).

따라서, 앞서 논의 되었던 정보원, 메시지, 프레임의 효과가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그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것을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때,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메시지에 따라 지, 그리고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의 경우 이용된 정보에 따라 뉴스 이해와 평가에 대한 효과가 강조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제시한다.

연구가설 1: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이 뉴스 이해, 뉴스 평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자의 관여도가 높은 조건에서 강조되어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인용된 정보원의 전문성이 뉴스 이해, 뉴스 평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자의 관여도가 낮은 조건에서 강조되어 나타날 것이다.
2. 뉴스이용에서 관여도와 프레임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이용자의 관여도에 따른 메시지 품질과 정보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프레임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프레임이 특정 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는 것뿐만 머물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의 과정에 연관되는 여러 심리적 및 인지적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Lecheler, et al., 2009). ‘프레임링 과정(process of framing)’에서 미디어 프레임과 개인의 사전 지식 및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정보 습득, 해석, 그리고 이슈와 사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DeVreese, 2005).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이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이용자가 이슈에 대해서 느끼는 중요성이 증가되어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利用자가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요성이나 관여하는 정도는 이용자의 스키마(schema)이며, 이는 프레임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스키마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 중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고 무시하는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hen, 2004). 이용자가 자신의 스키마와 일관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기억이 된다. 샤(Shen, 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레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스키마와 프레임의 내용이 일치했을 때 이슈 해석과 태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하용 & 제방훈(2009)의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 효과를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이슈에 프레임을 설정하여, 인지 정교화의 수준을 중개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메시지 특성을 변형시켜 수용자가 메시지에 동조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관여도를 ‘개인적 관심도’와 ‘개인의 비평적 사고 경향’으로 분리하여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프레임 효과와 관여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관여 높은 집단이 관여가 낮은 집단에 비해 프레임에 의해 동조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프레임에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재선과 이동훈(2012)의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보도 기사의 유용성 또는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프레임이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이용자들의 관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적, 의학적, 그리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보도 태도, 즉 인간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이용자에 공극적인 행동 및 태도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았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일화적 프레임과 비슷하며, 정치사회적 프레임과 의학적 프레임의 경우 주제적 프레임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의를 인간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적 반응의 경우 이용자가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신뢰하는 정도와 설득된 정도를 뜻하며, 정서적 반응의 경우 주어진 정보에 대해 느끼는 홍미로움의 정도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프레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관여의 정도와 정서적 반응이 종합적으로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레임과 관여도 상호작용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슈에 대한 관여가 높은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레첼러와 그의 동료들(Lecheler, et al., 2009)의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이슈의 중요성이 높으면서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프레임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서적 이슈에서의 프레임 효과를 관찰했다. 중요성이 높은 정치적 이슈와 낮은 정치적 이슈 중,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이슈에서 프레임 효과가 나타났지만 중요성이 높은 이슈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중요한 이슈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프레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논리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곧 이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임수록 프레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에게 프레임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브레아버먼(Braverman, 2008)의 연구에서도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프레임에 따라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증언(testimonial) 위주의 글과 정보 위주의 글이 이용자의 개인적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이용자의 개인적 관여에 따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증언 혹은 체계적인 정보 위주의 글에 의해 메시지에 대한 평가, 동의, 그리고 행동의사가 영향을 받는지

7 이 연구는 건강 및 다이어트와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메시지의 종류와 전달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했다.
실험 했다. 결과적으로 관여도에 따른 주 효과와 메시지와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정보 위주의 글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중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이용자가 이슈에 대한 해석, 평가, 그리고 의견 및 태도 형성에 프레임과 관여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았으며 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가 프레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레임의 주요 관점이 이용자가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에 일치하였을 경우, 프레임에 따른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대한 프레임과 관여도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여도는 이용자가 정보를 추구하려는 욕구와 이어질 수 있으며,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낮은 이용자의 비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인간적인 흥미가 강조되는 일화적 프레임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프레임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프레임과 관여도의 효과에 대해 연구문제 3을 제시한다.

연구문제 3: 일화적이거나 주제적인 뉴스 프레임이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는 뉴스 이용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및 절차

1. 실험 디자인 및 절차

이 연구는 (1) 독립변수인 뉴스에서의 인용 정보원, 인용 메시지 품질, 프레임이 종속변수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주 효과, (2) 뉴스 속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 그리고 (3) 이용자의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때 독립변수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림 1>에 제시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프레임(주제적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인용 정보원(전문가 정보원, 익명 네티즌 정보원), 그리고 인용된 메시지의 품질(고품질 메시지, 저품질 메시지)로 이용된 메시지를 2x2x2 로 실험 처리하여 총 여덟 개의 기사가 작성 되었다. 실험 참여자가 처리 된 뉴스를 읽은 후 해당 이슈에 대해 노출 이전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는지 측정하였으며, 각 실험 처리에 따른 정서적 반응, 뉴스 이해도, 그리고 뉴스 평가를 평가했다.

1) 실험절차

실험은 온라인에서 진행 되었으며, 실험에 동의한 참가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온라인 뉴스 기사 한 편을 읽게 된다. 기사는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에 따라 <표 1>에 제시된 유형으로 제공 되었다. 기사 전체를 읽은 후, 실험 참가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관여도,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대략 15 분에서 2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1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 실험처치 기사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시 1년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자난 16일 서울시 OO고등학교의 재학 중이던 A군(16)이 현 장의 유서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야가를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같은 반
학생 두 남성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남성성당과 구모안은 경찰에 조용하다고 은순
한 성격의 A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실례한 실직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중점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례학생의 처벌기록 확인기록부 기재, 경제적학 절치, 계임이용시
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중점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서울 고교생 투신'

' 얼마, 아빠, 그리고 누나 미안해, 끝난 아들이 갈아 내런 선덕을 하게 되었지만, 고등인 너
무 피로해여. 경찰 아빠님 너가 아직까지 피로해 벗어난 부름 여기다 적을께요.

'지난 16일 서울시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16)이 자신의 피로를 호소한 우려 형
식의 메모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야가를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이 자살
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반 학교폭력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유서에는 기재한 두 평의
아름과 그동안 깊은 유사에 대한 고용스러운 실적을 드러냈다.'
2)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들은 온라인 패널 업체 ‘엠브레인(Embrain Korea)’을 이용해 모집하였으며 총 287 명이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자녀유무, 그리고 온라인 뉴스 이용 분포는 아래 <표 2>에 제시 되었다. 온라인 뉴스 이용의 경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비슷한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표 3>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서적 반응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자녀유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의 종속 변수인 뉴스이해와 뉴스평가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실험 참가자 인구사회학적 분포

<table>
<thead>
<tr>
<th>성별</th>
<th>비도</th>
<th>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남</td>
<td>143</td>
<td>49.8</td>
</tr>
<tr>
<td>여</td>
<td>144</td>
<td>50.2</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령</th>
<th>비도</th>
<th>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만 29~20 세</td>
<td>73</td>
<td>25.4</td>
</tr>
<tr>
<td>만 30~39 세</td>
<td>66</td>
<td>23.0</td>
</tr>
<tr>
<td>만 40~49 세</td>
<td>78</td>
<td>27.2</td>
</tr>
<tr>
<td>만 50~59 세</td>
<td>70</td>
<td>24.4</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자녀유무</th>
<th>비도</th>
<th>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유</td>
<td>161</td>
<td>45.1</td>
</tr>
<tr>
<td>무</td>
<td>126</td>
<td>43.9</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온라인뉴스 이용</th>
<th>비도</th>
<th>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1~10</td>
<td>258</td>
<td>89.9</td>
</tr>
<tr>
<td>11~20</td>
<td>20</td>
<td>6.8</td>
</tr>
<tr>
<td>21~50</td>
<td>8</td>
<td>3.0</td>
</tr>
</tbody>
</table>

총 287 100.0
<표 3>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thead>
<tr>
<th></th>
<th>뉴스이해</th>
<th>뉴스평가</th>
<th>정서적 반응</th>
<th>성별</th>
<th>연령</th>
<th>자녀유무</th>
<th>뉴스이용</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상관계수</td>
<td>-.021</td>
<td>-.061</td>
<td>.134</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727</td>
<td>.303</td>
<td>.023**</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상관계수</td>
<td>-.069</td>
<td>.083</td>
<td>.144</td>
<td>-.042</td>
<td></td>
<td></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242</td>
<td>.147</td>
<td>.015**</td>
<td>.477</td>
<td></td>
<td></td>
</tr>
<tr>
<td>자녀유무</td>
<td>상관계수</td>
<td>-.053</td>
<td>-.074</td>
<td>-.154</td>
<td>-.031</td>
<td>-.734</td>
<td></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373</td>
<td>.214</td>
<td>.009**</td>
<td>.599</td>
<td>.000**</td>
<td></td>
</tr>
<tr>
<td>온라인</td>
<td>상관계수</td>
<td>-.034</td>
<td>.037</td>
<td>.011</td>
<td>-.077</td>
<td>-.098</td>
<td>.039</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572</td>
<td>.535</td>
<td>.856</td>
<td>.196</td>
<td>.097</td>
<td>.512</td>
</tr>
</tbody>
</table>

* p < 0.01

---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 하였으며, 자녀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1, 자녀가 없을 경우 2로 코딩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2. 실험처리

프레임, 정보원, 및 메시지 품질의 효과를 보기 위해 뉴스 프레임, 기사 내에 인용된 정보원과 인용된 정보의 질을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처리되었다. 실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4>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속성 실험처리

<table>
<thead>
<tr>
<th>프레임</th>
<th>인용된 정보원</th>
<th>인용된 메시지</th>
</tr>
</thead>
<tbody>
<tr>
<td>주제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인용된 정보원</td>
<td>저품질</td>
</tr>
<tr>
<td></td>
<td>인용된 메시지</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인용된 메시지</td>
<td>저품질</td>
</tr>
<tr>
<td>일화적 프레임</td>
<td>인용된 정보원</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인용된 메시지</td>
<td>저품질</td>
</tr>
</tbody>
</table>

(1) 프레임

이 연구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뉴스라고 하여도 프레임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이슈를 적용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과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뉴스 기사이며, 2012년 한국 정부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일화적 프레임은 학교 폭력에 연관된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된 뉴스 기사이며, 가상의 학교폭력 피해자 서울시 OO 고등학교 A 군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성(expertise)을 기준으로 취재원을 '공적(official) 취재원'과 '비공적(non-official) 취재원'으로 구분하거나 알려진(known) 사람과 알려지지 않은(unknown) 사람, 엘리트(elite) 계층과 엘리트가 아닌(nonelite), 그리고 관계된(affiliated)와 관계되지 않은(unaffiliated)로 분류되어 왔다 (Miller & Kurpius, 2010). 공적 정보원은 보도와 관계된 정보원으로써 엘리트 정보원과 같은 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유명하지 않아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원을 의미한다. 반대로 비공적 정보원은 엘리트 계층이 아닌(nonelite) 정보원이며, 커뮤니티 내에 일반 시민들이 해당된다 (Miller & Kurpius, 2010).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을 '전문가'와 '익명 네티즌' 정보원으로 구분 지었다. '전문가'는 기존 연구의 공적 취재원 및 엘리트 취재원과 같으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문가가 해당된다. 전문가의 경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직명이나 사회적 위치가 제시되었을 경우 신뢰가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익명 네티즌' 정보원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시판, 및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부터 취합한 정보원으로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다. 실제 실험 처리에 이용된 전문가 정보원은 주제적 프레임에서는 '서울대 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관계자' 그리고 일상적 프레임에서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관계자'이며 익명 네티즌 정보원은 두 프레임에서 동일하게 '네티즌 kor****'과 '네티즌 asd****'로 설정했다.

(3) 인용 메시지 품질

이 연구에서는 인용된 메시지를 이전 연구들에서 논의 되었던 메시지의 가치적 및 표현적 속성들을 기준으로 처리 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정보의 제시이다. 고품질 메시지의 경우, 정부 통계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단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저품질 메시지의 경우, 객관적인 통계 수치 혹은 기재용 정보가 제시되지 않으며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둘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이다. 고품질 메시지의 경우,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저품질 메시지의 경우 감정적이며 사건에 연관된 가해자들에 대한 격한
표현을 사용한다. 셋째, 편향된 정보의 제공이다. 고품질의 메시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제의를 하는 반면 저품질의 메시지의 경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5> 실험처치 인용 메시지 예시

<table>
<thead>
<tr>
<th>메시지 내용</th>
<th>글자수</th>
</tr>
</thead>
<tbody>
<tr>
<td>고품질 메시지</td>
<td></td>
</tr>
<tr>
<td>'A 군과 같이 조용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보복이 드러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 표정, 행동 등에 관심을 높여 학교폭력의 전조를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책단 자료에 따르면 57%의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이 우려돼 도움을 요청하지 290자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난 해 발표된 84개의 세부 대책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시키고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발달을 파악하여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측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td>
<td></td>
</tr>
<tr>
<td>'현재 실행중인 정책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4년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A 군과 같은 학생들의 목숨이 계속 위협되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3.6%의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td>
<td>212자</td>
</tr>
</tbody>
</table>
재품질 메시지

‘A 군이 너무 불쌍하다. 가해자 놈들은 자기 잘못이なのに 제대로 깨닫고 발 빼고 자기만 해와라. 애들이야 무조건 형사 처벌하고 자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애초에 수수방관한 교사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 작년부터 실행 중이라는 233 자 종합대책이나 2004 년에 제정된 법이나 가해학생들에게 너무 유한 것 같다. 이런 애들은 학교 밖에서나 안에서나 인간 취급 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로 혼을 내줘야 한다.’

‘요즘 애들은 지능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학교를 X 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자식 있는 입장에서 무서워서 학교에 애를 보내기 싶을 정도다. 정부는 84 개씩이나 되는 대책을 이전에 172 자 있었던 거 끼어 모아서 재탕하듯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학교폭력 뿌리를 뽑는다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제 2 절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1. 주요 변수 신뢰도 측정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 측정에 이용되었던 리커트 척도 항목들이 내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실행하였다. 독립변수인 관여도와 종속변수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은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항목들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관여도,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 측정 항목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 주요 변수 신뢰도 측정

<table>
<thead>
<tr>
<th>변수</th>
<th>항목 수</th>
<th>Cronbach’s α 알파</th>
</tr>
</thead>
<tbody>
<tr>
<td>관여도</td>
<td>6</td>
<td>.768</td>
</tr>
<tr>
<td>정서적 반응</td>
<td>7</td>
<td>.727</td>
</tr>
<tr>
<td>뉴스평가</td>
<td>8</td>
<td>.731</td>
</tr>
</tbody>
</table>

2. 주요 변수 측정 항목

(1) 관여도

이 연구에서 관여도는 정보원, 메시지, 프레임 효과의 조절 변수로서 뉴스에 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용자가 느끼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사안에 대해 갖는 흥미 또는 관심의 정도이다. 이는 실험처리 기사에서 제시되는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평상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졌고 관여를 했는지를 측정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삶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의 총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 5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2) 뉴스이해

뉴스 이해(comprehension)는 뉴스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recall)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실험 처치가 된 뉴스 기사 내에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사건 및 정책에 대한 여러 개의 세부적인 기저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다섯 개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이용해 측정했다. 다섯 문항 중 네 개의 문항은

---

9 여덟 개의 실험 집단 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부록 4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수치, 날짜, 그리고 명칭 등의 객관적인 정보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마지막 질문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질문을 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3) 뉴스 평가


(4) 정서적 반응

3.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인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측정 결과, 정서적 반응과 뉴스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정서적 반응이 높을수록 뉴스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과 뉴스이해는 부작용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적 반응과 다른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서적 반응이 다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표 7> 정서적 반응, 뉴스이해, 뉴스평가 상관관계

<table>
<thead>
<tr>
<th></th>
<th>뉴스이해</th>
<th>뉴스평가</th>
<th>정서적 반응</th>
</tr>
</thead>
<tbody>
<tr>
<td>뉴스이해</td>
<td>상관계수</td>
<td>-.026</td>
<td>-.046</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661</td>
<td>.435</td>
</tr>
<tr>
<td>뉴스평가</td>
<td>상관계수</td>
<td>1</td>
<td>.187**</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td>
<td>.001</td>
</tr>
<tr>
<td>정서적 반응</td>
<td>상관계수</td>
<td>1</td>
<td>-</td>
</tr>
<tr>
<td></td>
<td>유의확률</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실험 조작화 검증

실험 진행하기 이전에 실험에 사용될 기사들이 적절하게 처치되어 실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여덟 개의 실험 기사 중 두 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총 11 명이 두 개의 기사를 읽고 설문에 응답했다. 서베이에 이용 된 두 기사는 (1) 주제적 프레임-전문가 인용-고품질 메시지와 (2) 일화적 프레임-익명 네티즌 인용-저품질 메시지 기사이다. 두 기사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두 개의 집단으로 설정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 프레임, 정보원, 그리고 메시지 품질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프레임과 관련하여,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학교폭력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 흥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이용해 5 점 척도로 이용해 측정했다. 주제적 프레임 기사를 본 이용자(M = 3.23, SD = 0.44)는 일화적 프레임 기사를 본 이용자(M = 2.57, SD = 0.54)에 비해 기사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 및 일반적인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응 t-검정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04, p < 0.05).

둘째, 정보원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학교폭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적으로 인정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이용해 5 점 척도로 측정했다. 전문가가 인용된 기사를 본 이용자(M = 3.11, SD = 0.76)는 익명 네티즌이 인용된 기사를 본 이용자(M = 2.02, SD = 0.44) 보다 정보원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 및 실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4.17, p < 0.05).
셋째, 메시지와 관련하여, '확실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이용해 5 점 척도로 측정했다. 고품질 메시지가 인용된 기사의 본 이용자(M = 3.32, SD = 0.51)는 저품질 메시지가 인용된 기사의 본 이용자(M = 2.20, SD = 0.53)에 비해 인용된 메시지가 확실한 주장과 근거를 제공하여 논리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차이는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 = 6.43, p < 0.05).

두 기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뉴스 이해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치에 의해서 기사의 난이도에 차이가 드러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사전조사에 '기사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여 5 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검증 결과, 사전조사에 이용된 각 기사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기사 조작화 t-검정 결과

<table>
<thead>
<tr>
<th>조건</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h>t</th>
<th>자유도</th>
<th>유의확률</th>
</tr>
</thead>
<tbody>
<tr>
<td>프레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제적</td>
<td>3.23</td>
<td>.44</td>
<td>3.04</td>
<td>10</td>
<td>.012</td>
</tr>
<tr>
<td>일화적</td>
<td>2.57</td>
<td>.54</td>
<td></td>
<td></td>
<td></td>
</tr>
<tr>
<td>인용 정보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가</td>
<td>3.11</td>
<td>.76</td>
<td>4.17</td>
<td>10</td>
<td>.002</td>
</tr>
<tr>
<td>비전문가</td>
<td>2.02</td>
<td>.44</td>
<td></td>
<td></td>
<td></td>
</tr>
<tr>
<td>인용 메시지품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품질</td>
<td>3.32</td>
<td>.51</td>
<td>6.43</td>
<td>10</td>
<td>.000</td>
</tr>
<tr>
<td>저품질</td>
<td>2.20</td>
<td>.5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1.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의 주 효과에 따른 뉴스 이해와 평가

실험 처치 요소인 뉴스에서의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이 종속 변수인 뉴스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삼원공변량분석 (three-way ANCOVA)를 실시했다. 세 개의 뉴스 속성에 따른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여도, 자녀유무, 성별, 연령, 온라인 뉴스 이용을 공변량 (covariate)으로 설정하여 통제한 후,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 집단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수인 뉴스 이해, 뉴스 평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 \text{표 9}, \text{표 10}, \text{표 11} \)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1>은 인용 정보원의 전문성이 뉴스 이해, 뉴스 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였다. 인용된 정보원이 익명 네티즌일 경우 이용자가 정보 원과의 유사성 및 현실적인 이미지가 인지되기 때문에 정서적 반응이 높이지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평가의 경우, 아직 이용자들이 기존 뉴스 가치에 따라 전문가 정보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본 석 결과, 뉴스 이해, 뉴스 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서 인용된 정보원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문제 1-2>는 인용 메시지의 품질이 뉴스 이해, 뉴스 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였다. 인용된 메시지가 저품질일 경우, 메시지의 생명감과 편향성이 과하게 부각되면서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런 논리 하에 고품질의 메시지에서 뉴스 이해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또한, 뉴스 평가 부분에서도 고품질의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가 평가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정서적 반응의 경우, 감정적 요소가 많은 저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분석 결과, 메시지 효과는 뉴스평가와 정서적 반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뉴스 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뉴스 이해에 대하여 메시지 품질에 의한 차이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F = 5.138, p < 0.05, \eta_p^2 = .018 \)로 구체적으
로, 고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M = 0.223, SD = 0.177\))가 저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M = 0.280, SD = 0.204\))에 비해 뉴스 이해가 높았다. 이는 이용자의 관여도가 개입되지 않고 단순히 뉴스를 접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객관적인 정보와 편향되지 않은 고품질의 메시지를 접했을 때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대했던 메시지 효과가 뉴스이해에서 일부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1-3은 프레임이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 하였다. 개인 중심적인 사례를 다룬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이용자는 주제 적 프레임에 노출된 이용자에 비해 정서적 프레임이 높을 것을 기대하였으며, 객관적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주제적 프레임에서 뉴스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반대로 뉴스평가의 경우,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뉴스 이용자들이 인간적 흥미를 자극하는 감성적 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예측이다. 분석 결과, 프레임 효과에 의한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메시지의 질적인 차이에 의한 뉴스이해와 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정적이고 생동적인 메시지에 비해 오히려 메시지가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정보를 전달하고 중립적인 톤으로 전달되었을 때 뉴스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면 여러 뉴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뉴스평가는 프레임 효과에 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

연구문제 2는 인용 정보원, 인용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비해 그 효과가 강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표 9>, <표 10>, <표 11>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확인한 바, 성별, 연령, 온라인뉴스 이용, 자녀유무, 그리고 관여도가 통계되었다. 때, 인용, 메시지, 프레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용자의 관여도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그
리고 프레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정도로 효과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9>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뉴스이해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곱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곱</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000</td>
<td>1</td>
<td>.000</td>
<td>.000</td>
<td>.985</td>
<td>.000</td>
</tr>
<tr>
<td>연령</td>
<td>.289</td>
<td>1</td>
<td>.289</td>
<td>7.917</td>
<td>.005</td>
<td>.028</td>
</tr>
<tr>
<td>온라인뉴스 이용</td>
<td>.012</td>
<td>1</td>
<td>.012</td>
<td>.338</td>
<td>.561</td>
<td>.001</td>
</tr>
<tr>
<td>자녀유무</td>
<td>.290</td>
<td>1</td>
<td>.290</td>
<td>7.946</td>
<td>.005</td>
<td>.028</td>
</tr>
<tr>
<td>관여도</td>
<td>.015</td>
<td>1</td>
<td>.015</td>
<td>.421</td>
<td>.517</td>
<td>.002</td>
</tr>
<tr>
<td>프레임</td>
<td>.037</td>
<td>1</td>
<td>.037</td>
<td>1.015</td>
<td>.315</td>
<td>.004</td>
</tr>
<tr>
<td>정보원</td>
<td>.007</td>
<td>1</td>
<td>.007</td>
<td>.192</td>
<td>.662</td>
<td>.001</td>
</tr>
<tr>
<td>메시지 품질</td>
<td>.187</td>
<td>1</td>
<td>.187</td>
<td>5.138</td>
<td>.024*</td>
<td>.018</td>
</tr>
<tr>
<td>프레임×정보원</td>
<td>.003</td>
<td>1</td>
<td>.003</td>
<td>.089</td>
<td>.766</td>
<td>.000</td>
</tr>
<tr>
<td>프레임×메시지 품질</td>
<td>.007</td>
<td>1</td>
<td>.007</td>
<td>.193</td>
<td>.661</td>
<td>.001</td>
</tr>
<tr>
<td>정보원×메시지 품질</td>
<td>.000</td>
<td>1</td>
<td>.000</td>
<td>.005</td>
<td>.944</td>
<td>.000</td>
</tr>
<tr>
<td>프레임×정보원×메시지 품질</td>
<td>.082</td>
<td>1</td>
<td>.082</td>
<td>2.251</td>
<td>.135</td>
<td>.008</td>
</tr>
<tr>
<td>오차</td>
<td>9.987</td>
<td>274</td>
<td>.036</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29.240</td>
<td>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 표 10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뉴스평가

<table>
<thead>
<tr>
<th>소스</th>
<th>구분합</th>
<th>자유도</th>
<th>평균 구분합</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0.186</td>
<td>1</td>
<td>0.186</td>
<td>0.914</td>
<td>0.340</td>
<td>0.003</td>
</tr>
<tr>
<td>연령</td>
<td>0.091</td>
<td>1</td>
<td>0.091</td>
<td>0.449</td>
<td>0.503</td>
<td>0.002</td>
</tr>
<tr>
<td>온라인뉴스 이용</td>
<td>0.063</td>
<td>1</td>
<td>0.063</td>
<td>0.312</td>
<td>0.577</td>
<td>0.001</td>
</tr>
<tr>
<td>자녀유무</td>
<td>0.007</td>
<td>1</td>
<td>0.007</td>
<td>0.035</td>
<td>0.852</td>
<td>0.000</td>
</tr>
<tr>
<td>관여도</td>
<td>0.956</td>
<td>1</td>
<td>0.956</td>
<td>4.711</td>
<td>0.031</td>
<td>0.017</td>
</tr>
<tr>
<td>프레임</td>
<td>0.013</td>
<td>1</td>
<td>0.013</td>
<td>0.066</td>
<td>0.798</td>
<td>0.000</td>
</tr>
<tr>
<td>정보원</td>
<td>0.433</td>
<td>1</td>
<td>0.433</td>
<td>2.133</td>
<td>0.145</td>
<td>0.008</td>
</tr>
<tr>
<td>메시지</td>
<td>0.330</td>
<td>1</td>
<td>0.330</td>
<td>1.624</td>
<td>0.204</td>
<td>0.006</td>
</tr>
<tr>
<td>프레임 × 정보원</td>
<td>0.494</td>
<td>1</td>
<td>0.494</td>
<td>2.436</td>
<td>0.120</td>
<td>0.009</td>
</tr>
<tr>
<td>프레임 × 메시지 품질</td>
<td>0.012</td>
<td>1</td>
<td>0.012</td>
<td>0.062</td>
<td>0.804</td>
<td>0.000</td>
</tr>
<tr>
<td>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0.461</td>
<td>1</td>
<td>0.461</td>
<td>2.272</td>
<td>0.133</td>
<td>0.008</td>
</tr>
<tr>
<td>프레임 ×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0.182</td>
<td>1</td>
<td>0.182</td>
<td>0.898</td>
<td>0.344</td>
<td>0.003</td>
</tr>
<tr>
<td>오차</td>
<td>55.618</td>
<td>274</td>
<td>0.203</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1051.734</td>
<td>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 표 11. 프레임, 정보원, 메시지 품질에 따른 정서적 반응

<table>
<thead>
<tr>
<th>소스</th>
<th>F</th>
<th>유의확률</th>
<th>η²</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432</td>
<td>.118</td>
<td>.009</td>
</tr>
<tr>
<td>연령</td>
<td>.240</td>
<td>.243</td>
<td>.005</td>
</tr>
<tr>
<td>뉴스이용</td>
<td>.007</td>
<td>.842</td>
<td>.000</td>
</tr>
<tr>
<td>자녀유무</td>
<td>.606</td>
<td>.064</td>
<td>.012</td>
</tr>
<tr>
<td>관여도</td>
<td>15.484</td>
<td>.000</td>
<td>.244</td>
</tr>
<tr>
<td>프레임</td>
<td>.025</td>
<td>.708</td>
<td>.001</td>
</tr>
<tr>
<td>정보원</td>
<td>.317</td>
<td>.179</td>
<td>.007</td>
</tr>
<tr>
<td>메시지</td>
<td>.016</td>
<td>.764</td>
<td>.000</td>
</tr>
<tr>
<td>프레임 ×정보원</td>
<td>.423</td>
<td>.121</td>
<td>.009</td>
</tr>
<tr>
<td>프레임 ×메시지 품질</td>
<td>.091</td>
<td>.472</td>
<td>.002</td>
</tr>
<tr>
<td>정보원 ×메시지 품질</td>
<td>.183</td>
<td>.308</td>
<td>.004</td>
</tr>
<tr>
<td>프레임 ×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041</td>
<td>.631</td>
<td>.001</td>
</tr>
<tr>
<td>오차</td>
<td>47.965</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5345.472</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3.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른 뉴스 이해와 평가

앞서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뉴스 속성에 따른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 관여도를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관여도와 인용, 그리고 메시지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관여도와 관여도에 영향을 주는 자녀유무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원공변량분석 (four-way ANCOVA)를 실시했다. 따라서 성별, 연령, 그리고 온라인 뉴스이용만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서 관여도, 프레임, 메시지 품질, 그리고 인용 정보원이 미치는 효과를 보았다. 분석 결과 중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중심인 인용 정보원, 메시지 품질, 그리고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12>, <표 13>,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뉴스평가에서 관여도와 메시지 품질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메시지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 중에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M = 2.05, SD = .472)는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M = 1.80, SD = .734)에 비해 뉴스평가가 높았지만, 저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 중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M = 1.80, SD = .539)는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M = 1.84, SD = .428)에 비해 뉴스평가가 낮았다. 즉, 뉴스를 평가할 때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더 받으며, 고품질과 저품질의 메시지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은 메시지와 정보원의 효과 및 뉴스 속성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 관여도의 독립적인 주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정서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메시지와 인용된 정보원과 상관 없이 정서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메시지가 상호작용하였을 때 단순히 인용,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뉴스평가에 비해 강조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구가설 1>이 뉴스평가에 의해서 일부 지지 되었다. 하지만 모델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가 전문가에 노출되었을 때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각각 되었다.
표 12 정보원, 메시지 품질,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곱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곱</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_p^2$</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002</td>
<td>1</td>
<td>.002</td>
<td>.058</td>
<td>.811</td>
<td>.000</td>
</tr>
<tr>
<td>연령</td>
<td>.034</td>
<td>1</td>
<td>.034</td>
<td>.897</td>
<td>.344</td>
<td>.003</td>
</tr>
<tr>
<td>뉴스이용</td>
<td>.013</td>
<td>1</td>
<td>.013</td>
<td>.349</td>
<td>.555</td>
<td>.001</td>
</tr>
<tr>
<td>정보원</td>
<td>.000</td>
<td>1</td>
<td>.000</td>
<td>.007</td>
<td>.936</td>
<td>.000</td>
</tr>
<tr>
<td>메시지 품질</td>
<td>.187</td>
<td>1</td>
<td>.187</td>
<td>4.930</td>
<td>.027*</td>
<td>.018</td>
</tr>
<tr>
<td>관여도</td>
<td>.006</td>
<td>1</td>
<td>.006</td>
<td>.168</td>
<td>.682</td>
<td>.001</td>
</tr>
<tr>
<td>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001</td>
<td>1</td>
<td>.001</td>
<td>.023</td>
<td>.880</td>
<td>.000</td>
</tr>
<tr>
<td>정보원 × 관여도 메시지 품질</td>
<td>.053</td>
<td>1</td>
<td>.053</td>
<td>1.408</td>
<td>.236</td>
<td>.005</td>
</tr>
<tr>
<td>관여도</td>
<td>.000</td>
<td>1</td>
<td>.000</td>
<td>.010</td>
<td>.920</td>
<td>.000</td>
</tr>
<tr>
<td>오차</td>
<td>10.176</td>
<td>268</td>
<td>.038</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29.240</td>
<td>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표 13> 정보원, 메시지 품질,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평가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공활</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공</th>
<th>F</th>
<th>유의확률</th>
<th>( \eta^2 )</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146</td>
<td>1</td>
<td>.146</td>
<td>.732</td>
<td>.393</td>
<td>.003</td>
</tr>
<tr>
<td>연령</td>
<td>.337</td>
<td>1</td>
<td>.337</td>
<td>1.688</td>
<td>.195</td>
<td>.006</td>
</tr>
<tr>
<td>뉴스평가</td>
<td>.268</td>
<td>1</td>
<td>.268</td>
<td>1.344</td>
<td>.247</td>
<td>.005</td>
</tr>
<tr>
<td>정보원</td>
<td>.716</td>
<td>1</td>
<td>.716</td>
<td>3.585</td>
<td>.059</td>
<td>.013</td>
</tr>
<tr>
<td>메시지 품질</td>
<td>.704</td>
<td>1</td>
<td>.704</td>
<td>3.525</td>
<td>.062</td>
<td>.013</td>
</tr>
<tr>
<td>관여도</td>
<td>.404</td>
<td>1</td>
<td>.404</td>
<td>2.024</td>
<td>.156</td>
<td>.007</td>
</tr>
<tr>
<td>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403</td>
<td>1</td>
<td>.403</td>
<td>2.020</td>
<td>.156</td>
<td>.007</td>
</tr>
<tr>
<td>정보원 × 관여도</td>
<td>.419</td>
<td>1</td>
<td>.419</td>
<td>2.099</td>
<td>.149</td>
<td>.008</td>
</tr>
<tr>
<td>메시지 품질 × 관여도</td>
<td>1.974</td>
<td>1</td>
<td>1.974</td>
<td>9.886</td>
<td>.002*</td>
<td>.036</td>
</tr>
<tr>
<td>오차</td>
<td>53.522</td>
<td>268</td>
<td>.200</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1051.734</td>
<td>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 <표 14> 정보원, 메시지 품질,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적 반응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공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공</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577</td>
<td>1</td>
<td>.577</td>
<td>3.046</td>
<td>.082</td>
<td>.011</td>
</tr>
<tr>
<td>연령</td>
<td>.057</td>
<td>1</td>
<td>.057</td>
<td>.300</td>
<td>.584</td>
<td>.001</td>
</tr>
<tr>
<td>정보원</td>
<td>.477</td>
<td>1</td>
<td>.477</td>
<td>2.519</td>
<td>.114</td>
<td>.009</td>
</tr>
<tr>
<td>메시지 품질</td>
<td>.001</td>
<td>1</td>
<td>.001</td>
<td>.004</td>
<td>.948</td>
<td>.000</td>
</tr>
<tr>
<td>관여도</td>
<td>11.956</td>
<td>1</td>
<td>11.956</td>
<td>63.146</td>
<td>.000</td>
<td>.191</td>
</tr>
<tr>
<td>정보원 × 메시지 품질</td>
<td>.219</td>
<td>1</td>
<td>.219</td>
<td>1.154</td>
<td>.284</td>
<td>.004</td>
</tr>
<tr>
<td>정보원 × 관여도</td>
<td>.111</td>
<td>1</td>
<td>.111</td>
<td>.587</td>
<td>.444</td>
<td>.002</td>
</tr>
<tr>
<td>메시지 품질 × 관여도</td>
<td>.007</td>
<td>1</td>
<td>.007</td>
<td>.034</td>
<td>.853</td>
<td>.000</td>
</tr>
<tr>
<td>오차</td>
<td>50.745</td>
<td>268</td>
<td></td>
<td></td>
<td>.189</td>
<td></td>
</tr>
<tr>
<td>합계</td>
<td>5345.472</td>
<td>287</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05$
4. 관여도와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와 평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중앙경로와 주변경로에 따라 관여도와 메시지, 정보원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설명되었지만,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도 관여도와 상호작용하여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문제 3>을 제시했다. 앞서 실시한 사원공변량분석 결과 중 프레임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5>에 제시되었다.

프레임의 효과는 관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 되었다. 이 연구에서 프레임이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관여도가 개입되었을 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문제 3>을 제시하였다.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에 따라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없을 것을 기대했으며,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의 경우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에 따라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서 프레임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프레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의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 뉴스평가에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M = 1.92, SD = .512)는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M = 1.82, SD = .402)에 비해 높았으며, 정서적 반응도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M = 4.55, SD = .418)는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M = 4.11, SD = .4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 밖으로 뉴스이해에 있어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가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서 모두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에 비해 높았다.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가 프레임과 상관없이 뉴스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결과에 의하면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M = .261, SD = .197)가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M = .244, SD = .188)에 비해 뉴스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름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나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 모두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에 대한 유의미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앞서 분석했던 결과와 종합하였을 때,
어느 프레임에서도 관여도는 메시지 품질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뉴스 생산에 있어서 메시지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5 프레임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뉴스이해, 뉴스평가, 정서적 반응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곱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곱</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프레임</td>
<td>.026</td>
<td>1</td>
<td>.026</td>
<td>.696</td>
<td>.405</td>
<td>.003</td>
</tr>
<tr>
<td>관여도</td>
<td>.006</td>
<td>1</td>
<td>.006</td>
<td>.168</td>
<td>.682</td>
<td>.001</td>
</tr>
<tr>
<td>프레임 x 관여도</td>
<td>.003</td>
<td>1</td>
<td>.003</td>
<td>.079</td>
<td>.780</td>
<td>.00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곱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곱</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프레임</td>
<td>.057</td>
<td>1</td>
<td>.057</td>
<td>.286</td>
<td>.594</td>
<td>.001</td>
</tr>
<tr>
<td>관여도</td>
<td>.404</td>
<td>1</td>
<td>.404</td>
<td>2.024</td>
<td>.156</td>
<td>.007</td>
</tr>
<tr>
<td>프레임 x 관여도</td>
<td>.077</td>
<td>1</td>
<td>.077</td>
<td>.385</td>
<td>.536</td>
<td>.00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소스</th>
<th>제곱합</th>
<th>자유도</th>
<th>평균 제곱</th>
<th>F</th>
<th>유의확률</th>
<th>$\eta^2$</th>
</tr>
</thead>
<tbody>
<tr>
<td>프레임</td>
<td>.018</td>
<td>1</td>
<td>.018</td>
<td>.097</td>
<td>.756</td>
<td>.000</td>
</tr>
<tr>
<td>관여도</td>
<td>11.956</td>
<td>1</td>
<td>11.956</td>
<td>63.146</td>
<td>.000</td>
<td>.191</td>
</tr>
<tr>
<td>프레임 x 관여도</td>
<td>.340</td>
<td>1</td>
<td>.340</td>
<td>1.795</td>
<td>.181</td>
<td>.007</td>
</tr>
</tbody>
</table>

* p < 0.05
제 5 장 연구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뉴스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접한 사회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 수사적 기법인 인용된 정보원, 인용된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뉴스 속성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뉴스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이용자가 갖고 있는 관여도가 중재적인 역할을 하였을 때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의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여 이용자의 인지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정교화 가능성을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인용 정보원, 인용 메시지, 프레임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태도 및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관찰되었지만, 이 연구는 뉴스 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이용자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적절한 양과 질의 객관적인 정보를 뉴스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덟 개의 실험처리 기사를 이용한 온라인 실험 및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진행한 분석에서는 이용자의 관여도를 통제한 상황에서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에 따른 주 효과(<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 <연구문제 1-3>) 및 상호작용 효과(<연구문제 2>)가 나타나는지 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속변수인 뉴스평가와 정서적 반응에서 인용,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뉴스 이해에서는 메시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에 비해 고품질 메시지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뉴스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의 이해와 습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시지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중립적인 태도와 본을 유지했을 때 이용자들이 뉴스에 대한 습득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인용된 정보원과 프레임과 관계 없이 뉴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뉴스에서 적절한 메시지 또는 인용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
한다.

둘 째, 프레임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일차적 프레임이 사
용되었을 때 생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될 것
이라는 연구의 기대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간적인 흥미와 감정적인 측면을 부
각하는 뉴스는 기존의 뉴스 가치들을 기준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받기도 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였던 ‘데카르트식 이원론’에 의해서 뉴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성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감정적인 뉴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
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일차적 프레임에 뉴스에 적용
되어도 뉴스이해와 뉴스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 째,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발견되
지 않았다. 뉴스에 특정 프레임을 적용하였을 때 이용자가 기대하는 정보원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특정 프레임에서 뉴스의 내용과 전문가 사이에 갖는 신뢰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되었던 주 효과 중 메시지의 효과가 더
욱 강조되며, 어느 정보원을 인용하거나 프레임을 이용하였을 때 메시지 품질을 유지하
는 것을 결과를 통해 제한적인 시각준다.

두 번째로 진행한 분석에서는 이용자 관여도를 분석에 투입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
델에 따라 인용된 정보원, 메시지 품질, 프레임이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
응에 비치는 영향이 관여도가 증가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두 개
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연구가설 1>, <연구가설 2>, 프레임도 관여도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연구문제 3).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뉴스평가에서 관여도와 메시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고품질 메
시지에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뉴스평가가 높았지만,
저품질 메시지에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가 비해 뉴스평가가 낮
았다. 이는 곧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뉴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메시지의 품질에 의
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정교화 가능성을 모델에 의하면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메시지 품질에, 그리고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정보원 단서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했다. 검증 결과,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메시
지를 구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교화 가능성을 모델에 의하면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의 경우 정보원에 의해 반응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여도와 이용된 정보원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없었다. 즉,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익명 네티즌이 아닌 전문가 정보원에 노출되었을 때 뉴스이해와 뉴스평가가 강조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에서 전문가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포괄적인 정보 추구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주제적 프레임과 일관적 프레임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반대로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프레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의 관여도가 개입되어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앞서 관여도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에 비해 관여도와 상호작용하였을 때 프레임의 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프레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조금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반응의 경우 관여도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용된 정보원, 메시지, 프레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여도가 높은 이용자는 어느 프레임, 정보원, 그리고 메시지를 접해도 해당 이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높으며, 관여도가 낮은 이용자는 반대로 정서적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뉴스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익명 네티즌의 이용은 뉴스이해와 뉴스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정서적 반응 역시 이에 대한 이용자의 관여도가 크게 작용했다. 뉴스이해와 평가에 있어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제 2 절 연구함의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뉴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익명 네티즌과 같이 온라인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이용이 다른 뉴스 속성들과 함께 제시 되었을 때 이용자의 뉴스 이해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이 아직 부족하고 여전 연구를 시작하였다. 온라인 뉴스가 경쟁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들을 이용하여 뉴스의 인간적인 흥미를 부각시키고 익명의 네티즌 정보원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특히 익명 네티즌 정보원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간과되었다. 기존 뉴스 매체에 비해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및 제정적인 한계로 인해 온라인 뉴스 생산자들은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익명 네티즌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처럼 되었지만, 직접적인 행사가 아닌 온라인에서 퍼 온 글을 기사에 사용한다는 것은 뉴스의 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연구는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검토한 바 뉴스 평가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전문가 혹은 일반인 등의 기존 신문과 방송 뉴스 매체에서 인용되었던 정보원에 초점을 맞춰 있었으며, 익명의 네티즌 정보원을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또한 관여도가 여러 뉴스속성과 상호작용하여 뉴스이해와 평가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활용된 정보원, 인용된 정보원의 메시지의 속성, 그리고 프레임이 적절하게 활용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생동감 및 유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속성이 잘 집합되었을 때 뉴스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뉴스의 프레임과, 변화하는 정보원,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적용되어 뉴스이해, 뉴스평가,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은 실제로 뉴스 매체에서 접하기 쉬운 사안이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뉴스 생산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된 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제적 및 일화적 프레임과 익명의 네티즌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기에 실험 처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뉴스이해와 평가는 메시지에 의해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뉴스 이해의 경우 메시지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으며, 뉴스 평가의 경우 메시지와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이해의 경우, 관여도와 관계 없이 이용자들이 메시지의 내용과 톤을 구분하고 고품질의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뉴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용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익명 네티즌과 전문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뉴스 이해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뉴스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보원을 인용하여도 메시지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관여도가 낮다고 전문가 정보원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및 익명 네티즌 정보원을 이용하였을 때 고품질의 메시지를 인용하는 것이 뉴스 이해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레임 효과는 뉴스평가에 큰 영향을 가지지 않았지만 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뉴스의 연성화가 가속되는 오늘날의 뉴스 매체 환경에서 네티즌 정보원을 활용하는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뉴스이해와 뉴스평가 측면에서 무조건 전통적인 뉴스 가치와 평가 기준에 따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적 홍미를 유발하고 익명 네티즌들을 뉴스에 인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뉴스이해와 평가에 있어서 인용된 익명 네티즌의 신뢰도를 기존의 전문가 및 공적 정보원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용하는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를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보았던, 인용 정보원, 인용 메시지 품질, 그리고 프레임의 효과가 뉴스이해와 평가에 일정한 효과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관여도의 효과가 뉴스평가와 이해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관여도가 높았을 때는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관여도가 낮았을 경우에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기대했던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효과는 완전히 지지되지 않았다.

실험에서 이용된 기사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기저율 정보와 감정적인 메시지를 기준으로, 메시지가 제시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고품질과 저품질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제적 프레임과 저품질 메시지가 같이 제시 되었을 때 감정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과 메시지의 효과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의 효과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보기 위해서는 프레임과 메시지의 속성을 뚜렷하게 구분 지어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서적 반응이 관여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서적 반응은 반대로 뉴스평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정서적 반응 또한 일종의 관여로서 뉴스이해와 평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종속 변수로서가 아닌 조절변수로 작용되었을 때 인용된 정보원, 인용된 메시지, 그리고 프레임의 효과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관여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의한다면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한 주제만을 다루었지만 온라인 뉴스에서의 익명 네티즌은 현대로서 연예 뉴스 등 루머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종류의 뉴스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정치나 경제 뉴스에서도 익명 네티즌 인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다룬 사회 뉴스를 조작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등 다양한 종류의 뉴스에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뉴스 속성과 관여도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주제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Abstract

The Effect of Online News Frame, Source, and Message Quality on News Evaluation and Comprehension: Application of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Seong In Choi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producers are searching for ways to attract more readers in competitive online news environment. However, due to structural and financial limitations that online news producers face, they have come to rely on available resources such as online ‘netizens’ to provide diverse perspectives in news articles. Based on traditional news values, using experts and public figures as news sources was believed to enhance news quality. Therefore, this new indirect method of reporting through the use of netizens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erms of news evaluation. Also, since netizen sources have the tendency to express emotional thoughts in their messages, this could arouse emotional responses from the reader and inhibit rational understanding of the issue.

Based on this phenomenon, this research assumed that the effect of sources on news comprehension, news evaluation, and emotional response will interact with other rhetorical devices such as message quality and news frame. Also, this research further presumed that the main and interactive effect of sources, message quality, and news frame would show different results when users’ issue involvement has a mediating role. Based on this presumption, this research applied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which asserts that users with high involvement consider message quality as an important factor when processing information, while users with low involvement rely
on source cues. To prove this theory, this research applied a 2x2x2(source x message quality x frame) experiment manipulation on online news articl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nd conducted a survey to measure users’ issue involvement, news comprehension, news evaluation, and emotional response.

The results showed that news comprehension was mainly influenced by message quality, while news evaluation was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nvolvement and message quality. This research also further extends the expectation that involvement could mediate effect of news frames. However, this research discovered that users with low involvement do not distinguish expert and anonymous netizen sources, which implies that low involvement users do not rely on source cues as expected from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evidence that netizen sources and episodic frames do not have negative influences on news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In conclusion,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news, message 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Keywords: Netizen source, Message quality, News frame, News evaluation, News comprehension,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Student Number: 2011–20156
<부록 1> 내용분석 개요

이 연구는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실험에 앞서 연구에서 문제 제기한 ‘익명 네티즌’ 정보원이 온라인 상에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단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별도의 코더(coder) 없이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분석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내용분석은 푸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뉴스캐스트를 기준으로 두 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6> 온라인 및 종합뉴스 섹션 별 정보원 인용

<table>
<thead>
<tr>
<th></th>
<th>독립형 온라인뉴스</th>
<th>종속형 온라인뉴스</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기사 수</td>
<td>네티즌 인용</td>
</tr>
<tr>
<td>정치</td>
<td>9</td>
<td>40</td>
</tr>
<tr>
<td>사회</td>
<td>5</td>
<td>28</td>
</tr>
<tr>
<td>경제</td>
<td>0</td>
<td>0</td>
</tr>
<tr>
<td>문화</td>
<td>1</td>
<td>2</td>
</tr>
<tr>
<td>총</td>
<td>9</td>
<td>40</td>
</tr>
</tbody>
</table>

첫째, 온라인 신문사와 종합뉴스 신문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섹션 별 네티즌이 인용되는 수를 관찰했다. 온라인 신문사는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온, 프레시안, 쿠키뉴스가 포함되었으며, 종합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은 2013년 4월 첫째 주(4월 1일 ~ 4월 7일)을 기준으로 실행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는 10개의 기사에서 네티즌이 총 40번 직접 인용되었으며, 종합 신문사의 경우 26개의 기사에서 네티즌이 총 91번 직접 인용되었다. 독립형 온라인 신문사에 비해 종속형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 인용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는 종합 뉴스 지면 기사가 아닌 종합 뉴스 디지털 판에서 작성되는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었다. 또한, 종속형 온라인뉴스종합 신문사디지털 판에서 네티즌 정보원은 사회와
문화 관련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었다. 반대로, 온라인 신문에서는 문화 섹션 보다 정치 및 경제 뉴스에서 네티즌이 인용되고 있었다.

<table>
<thead>
<tr>
<th>프레임</th>
<th>정보원</th>
<th>총</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전문가</td>
<td>일반인</td>
</tr>
<tr>
<td>독립형</td>
<td>33(49%)</td>
<td>19(28%)</td>
</tr>
<tr>
<td>온라인 뉴스</td>
<td>21(36%)</td>
<td>18(31%)</td>
</tr>
<tr>
<td></td>
<td>75(87%)</td>
<td>10(12%)</td>
</tr>
<tr>
<td>종속형</td>
<td>15(31%)</td>
<td>33(67%)</td>
</tr>
<tr>
<td>온라인 뉴스</td>
<td></td>
<td></td>
</tr>
</tbody>
</table>

둘째, 이 연구에서 실험 처치 대상으로 삼은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대한 프레임과 정보원 인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관찰 대상은 온라인 신문사와 종합 신문사였으며, 관찰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의 총 12개월, 총 3개월 주였다. 첫 번째 내용분석에 비해 분석의 범위가 넓으며 온라인 신문사는 온라인 경제지를 포함한 11개 신문사를 관찰했으며, 종합뉴스의 경우 10개의 신문사를 관찰했다. 프레임은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정보원은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익명 네티즌으로 구분하여 관찰했다. 일반인은 오프라인에서 취재한 일반인이고, 익명 네티즌은 이름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계정이 제공되거나 ‘네티즌’ 또는 ‘누리꾼’으로 지정된 정보원이 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독립형 온라인 뉴스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사건 및 정책 관련 기사가 종속형 온라인 뉴스에 비해 많은 수가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총 81개 기사에서 네티즌은 34명, 비전문가는 37명, 그리고 전문가는 54명이 직접 인용되었다. 종합 신문의 경우 84개 기사에서 네티즌은 2명, 비전문가는 43명, 그리고 전문가는 90명이 인용되었다. 현재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익명의 네티즌이 무분별하게 인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뉴스 주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익명의 네티즌이 인용되는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분석은 체계적인 내용분석이 아니므로 이 분석만을...
바탕으로 익명의 네티즌 인용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네티즌이 인용된 경우에 주로 어떠한 메시지가 인용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을 볼 수 있었다.

예 1) 2013년 3월 13일 머니투데이, "CCTV 좀..." 고교생 유서에 누리꾼 '애도'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티즌이 인용된 경우에 주로 어떠한 메시지가 인용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을 볼 수 있었다.

예 1) 2013년 3월 13일 머니투데이, "CCTV 좀...". 고교생 유서에 누리꾼 '애도'

예 2) 2013년 3월 14일 쿠키뉴스, "법복 드려요" 학교폭력 정부대책이 코미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학교에서의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죽이는 쿠격한 일이 벌어지는데 법복을 더 주겠다거나 토요문화학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코미디”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현실성을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예 3) 2012년 9월 10일 아데일리, 하여까지 벗겨진 10학년, 교실 바닥에... 충격

‘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심하다. 처벌받아야 한다” “친구에게 저런 처벌스런 것을 하냐” “무개념이다” “학교폭력에 좀 더 신경써야한다” “장난이라고 해도 사람들적으로 너무 심하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예 4) 2012 년 9 월 10 일 중앙일보, 남학생 나체로 바닥에 눕히고... "장난으로 했다"
변명에...

누리꾼들은 '학교폭력'이라며 비난했다. 게시자는 뒤늦게 "장난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한 눈이나 그걸 수정해서 올린 것이나 잘못이 크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장난이 아니다"며 작성자를 비난했다.
부록 2> 실험처리 기사

기사 1-1: 주제적 프레임 – 전문가 정보원 – 고품질 메시지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시 1년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서 제2학년 A군(16)이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은 평상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A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체감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처벌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강제전학조치,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인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통제의 방향으로 대책의 심층적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그리고 통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강조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 한계획이 있기에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뿌리 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의 84 개 세부대책 중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시키고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발달을 파악하고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측에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예단 자료에 따르면 57%의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이 우려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피해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전조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실행중인 정책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으며 ‘2004 년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3.6%의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기사 1-2: 주제적 프레임 - 전문가 정보원 - 저품질 메시지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시 1년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16)이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군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은 평상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A 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제감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처벌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강제전학 조치,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교사와 학교 측의 방관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율과 가해율은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이전보다 높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그리고 통제 외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계와 처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씹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말 뻗고 잘 날이 없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나 2004년에 제정했다는 법률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고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들도 처벌하는 방향을 생각하여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은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교사들의 권위를 벗어뜨리고 있다. 자식을 둔 학부모들은 무서워서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낼 정도다’라며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공포심을 표했다. ‘지금 실행중이라는 대책들은 어차피 과거에 언급했던 내용의 재탕이고 84개씩이나 되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난했다.
기사 1-3: 주제적 프레임 - 비전문가 정보원 - 고품질 메시지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시 1년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16)이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군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은 평소 조용하고 운순한 성격의 A 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제간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처벌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강제전학 조치,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교사와 학교 측의 방관으로 여겨 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율과 가해율은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이전보다 높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그리고 통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계와 처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뿐 아니라 깔끔하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네티즌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네티즌 kor****는 '지난해에 발표한 세부대책 84개 중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시키고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발달을 파악하고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측에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도록 힘을 써야 하지 않음까요? ‘라고 주장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57%의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이 우려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해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폭력을 미리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asd****는 ‘현재 시행중인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내가 알기론 2004 년에 정부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가 계속 생기는 건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아서인 것 같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3.6%의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알고 있는데 입시와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 1-4: 주제적 프레임 - 비전문가 정보원 - 저품질 메시지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시 1년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난 16일 서울시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16)이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군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은 평상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A 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제감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처벌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강제전학 조치,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교사와 학교 측의 방관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율과 가해율은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이전보다 높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그리고 통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받고 있다. 정책과 처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네티즌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 kor****는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 놈들은 자기 잘못이 뭔지 제대로 깨닫고 받 빨고 자기 말아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가해 학생들은 무조건 형사처벌 받고 자기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comando 수수방관한 교사들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실행 중이라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나 2004 년에 제정된 법이나 가해자에게 너무 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며 '학교 밖에서나 안에서나 인간 취급 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로 혼 좀 제대로 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asd****는 '요즘 예들은 지능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학교를 X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나 같이 자식 있는 부모는 무서워서 학교에 애를 보내기도 두려워'라며 '84 개씩이나 되는 대책을 얘기해도 말했던 거 갖고 재탄할듯이 만들어 놓고 무슨 학교폭력 뿌리를 뽑는다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
기사 2-1: 일화적 프레임 - 전문가 정보원 - 고품질 메시지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서울 고교생 투신’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미안해. 못난 아들이 끝내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경찰 아저씨들 내가 이때까지 피해함 받았던 일들 여기도 적을게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16)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 스스로 목숨을 끝냈다. A군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유서에는 가해자 두 명의 이름과 그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평상시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A군은 어느 날 교복 바지가 찢겨지고 더럽혀진 상태로 수업을 들이왔다. 그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은 A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별 말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한 달 후,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군의 부모님 또한 그가 학우들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는지 천조를 알 수 없어 일체감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A군은 학기 초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긴고 심부름을 맡았지만 별 말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한 달 후,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군의 부모님 또한 그가 학우들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는지 천조를 알 수 없어 일체감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졌으며, 45%의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떠올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A군과 같이 조용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 표정, 행동 등에
관심을 높여 학교폭력의 전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료에 따르면 57%의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이 우려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발표된 84개의 세부대책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시키고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발달을 파악하여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측에서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실행중인 정책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2004년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A군과 같은 학생들의 목숨이 계속 위협되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3.6%의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2-2: 일화적 프레임 - 전문가 정보원 - 저품질 메시지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서울 고교생 투신’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미안해. 못난 아들이 끝내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경찰 아저씨들 내가 이때까지 괴롭힘 받았던 일들 여가다 적을게요.’


평상시 온손하고 조용한 성격의 A 군은 어느 날 교복 바지가 찢겨지고 더럽혀진 상태로 수업을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은 A 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별 말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한 달 후, A 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 군의 부모님 또한 그가 학우들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는지 전조를 알 수 없어 일체감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A 군은 학기 초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빼기고 신부를 강요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A 군에게 다른 학우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 군은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맞거나 엎드린 채 무차별적인 폭행을 겪어야 했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졌으며, 45%의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A 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은 발 빼고 잘 날이 없어야 하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이나 2004년에 제정했다는 법률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며 말했다. ‘가해자들은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고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들도 처벌하는 방향을 생각하여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CCTV 를 피해서 폭력을 가하는 등 요즘 학생들이 지능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학교를 난징관으로 만들어 버리고 교사들의 권위를 멸어뜨리고 있다. 자신의 둔 학부모들은 무서워서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내 정도다’라며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공포심을 표출했다. ‘지금 실행중이라는 대책은 어차피 과거에 언급했던 내용의 재탕이고 84 개씩이나 되는 대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기사 2-3: 일화적 프레임 - 비전문가 정보원 - 고품질 메시지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서울 고교생 투신’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미안해. 몫난 아들이 끝내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경찰 아저씨들 내가 이때까지 괴롭힘 받았던 일들 여지다 적을께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16)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군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받은 괴롭힘 때문이었다. 유서에는 가해자 두 명의 이름과 그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평상시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A 군은 어느 날 교복 바지가 찢겨지고 더럽혀진 상태로 수업을 들이왔다. 그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은 A 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별 말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한 달 후, A 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 군의 부모님 또한 그가 학우들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는지 전조를 알 수 없어 일체감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A 군은 학기 초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빚기고 심부름 강요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A 군에게 다른 학우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 군은 학교 내 CCTV 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맞거나 엎드린 채 무차별적인 폭행을 겪어야 했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졌으며, 45%의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다짐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네티즌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네티즌 kor****는 ‘학교 다니면서 느낀 건데 A 군과 같이 조용한 학생들은 피해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태도, 표정, 행동 등에 관심을 높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57%의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이 우려되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 발표 된 84 개의 세부 대책 중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시키고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발달을 파악하여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노력할 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즌 asd****는 '또 한명의 학생이 이렇게 세상을 뜨다니 너무 안타깝다'며 '현재 시행중인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내가 알고 있는 2004 년에 정부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43.6%의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입시와 경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 2-4: 일화적 프레임 - 비전문가 정보원 - 저품질 메시지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서울 고교생 투신’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미안해. 못난 아들이 끝내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너무 과로되었어. 경찰 나자체들 내가 이때까지 과롭힘 받았던 일들 여디라 적을게요.’

지난 16일 서울시 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16)이 자신의 과로움을 호소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서울시 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군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받은 과롭힘 때문이었다. 유서에는 가해자 두 명의 이름과 그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평상시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A 군은 어느 날 교복 바지가 젖겨지고 더럽혀진 상태로 수업을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은 A 군에게 자조지를 물어봤지만 별 말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한 달 후, A 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 군의 부모님 또한 그가 학우들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는지 전조를 알 수 없어 일체감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A 군은 학기 초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기고 심부름 강요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A 군에게 다른 학우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 군은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맞거나 엎드린 채 무차별적인 폭행을 겪어야 했다.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졌으며, 45%의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 kor****는 ‘A 군이 너무 불쌍하다. 가해자 놈들은 자기 잘못이 원지 계대로 깨달고 발 뻗고 자기만 해봐라. 며 분노를 표했다.’ 애매들은 무조건 형사 처벌하고 자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애초에 수수방관한 교사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실행 중이라는 종합대책이나 2004년에 제정된 법이나 가해학생들에게 너무 유한 것 같다고 ‘며’ 이런 애들은 학교 밖에서나 안에서나 인간 취급 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로 혼을 내줘야 한다 ‘고 덧붙였다.

네티즌 asd****는 ‘요즘 애들은 지능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학교를 X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자식 있는 입장에서 무서워서 학교에 애를 보내기 싶을 정도다’라며 ‘정부는 84개씩이나 되는 대책을 이전에 있었던 거 끝어도 이제 제타하듯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학교폭력 뿌리를 뽑는다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며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뉴스 이해와 평가에 관한 조사입니다. 설문 전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하나의 온라인 기사가 제공 될 것이며 5~10 분 정도 기사를 읽으시면 됩니다. 기사를 읽으신 후에 해당 뉴스와 이슈에 관련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되며, 설문조사는 10~15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에서 진행 됩니다. 설문조사에 제공하신 모든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 목적을 위해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여해주시셔 감사합니다.

[다음 제시되는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뉴스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처치기사 제시)

1)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1. 학교폭력에 대해 평상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3.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문 및 온라인뉴스 기사를 이전에 자주 접하셨습니까?
4.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이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 기사에 제시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떠한 느낌 및 감정이 들었습니까?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무섭다
놀랍다
화난다
안타깝다
걱정된다
창피하다
희망적이다

3) 읽으신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을 응답하기 위해 기사를 다시 읽거나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1) 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떤 정책이 주목되고 있습니까?
① 학교폭력대책 ② 학교폭력 관련대책 ③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④ 학교폭력 근절대책 ⑤ 학교폭력중단 종합대책

3-2) 기사에 언급된 대책은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① 2011년 1월 ② 2011년 2월 ③ 2012년 1월
④ 2012년 2월 ⑤ 2012년 3월
3-3) 현재 실행중인 정부 대책은 몇 개의 세부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① 81 개 ② 82 개 ③ 83 개 ④ 84 개 ⑤ 85 개

3-4)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① 청소년폭력예방단 체 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③ 학교폭력예방단체
④ 학교폭력예방재단 ⑤ 폭력예방재단

3-5)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문장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었다
②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 체감수위가 높아졌다
③ 최근 학교폭력 가해율은 감소했다
④ 최근 학교폭력 피해율은 증가했다
⑤ 이번 사건에는 두 명의 가해학생이 있다

4) 읽으신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③</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④</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 2 3 4 5

이 사건은 가해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피해학생은 잘못이 없다
가해학생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야 한다
5) 읽으신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잘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보인다.

6) 읽으신 기사에 인용된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정보 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다.
정보 제공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가 많다.
정보 제공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 주변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보 제공자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7) 읽으신 기사에 인용된 정보 제공자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인용된 메시지가 흥미롭다
인용된 메시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한다
인용된 메시지가 확실한 주장을 갖고 있다
인용된 메시지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인용된 메시지가 논리적이다

8) 읽으신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해당 뉴스는 믿을 수 있다
해당 뉴스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한다
해당 뉴스는 공정한 정보를 제공 한다
해당 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다
해당 뉴스는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
해당 뉴스는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해당 뉴스는 선정적이다
해당 뉴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 한다
9) 읽으신 기사의 난이도가 어려웠습니까?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10) 읽으신 기사가 편향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11) 읽으신 기사가 흥미로웠습니까?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12) 읽으신 기사에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보통</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기사에 인용된 정보 제공자
인용된 정보 제공자의 메시지

1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 세

1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table>
<thead>
<tr>
<th></th>
<th>서울</th>
<th>부산</th>
<th>대구</th>
<th>인천</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td>
</tr>
<tr>
<td>⑤</td>
<td>⑥</td>
<td>⑦</td>
<td>⑧</td>
<td></td>
</tr>
<tr>
<td>⑨</td>
<td>⑩</td>
<td>⑪</td>
<td>⑫</td>
<td></td>
</tr>
<tr>
<td>⑬</td>
<td>⑭</td>
<td>⑮</td>
<td>⑯</td>
<td></td>
</tr>
<tr>
<td>⑰</td>
<td>⑱</td>
<td>⑲</td>
<td>⑳</td>
<td></td>
</tr>
</tbody>
</table>

17)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뉴스를 얼마나 읽으십니까?
종이신문 일주일에______번 / 방송뉴스 일주일에______번 / 온라인뉴스 일주일에______번
## 부록 4

### 1. 집단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thead>
<tr>
<th>프레임</th>
<th>인용 정보원</th>
<th>인용 메시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M</td>
<td>SD</td>
</tr>
<tr>
<td>주제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4.17</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4.24</td>
</tr>
<tr>
<td>일화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4.20</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4.23</td>
</tr>
</tbody>
</table>

### 2. 뉴스이해

<table>
<thead>
<tr>
<th>프레임</th>
<th>인용 정보원</th>
<th>인용 메시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M</td>
<td>SD</td>
</tr>
<tr>
<td>주제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223</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259</td>
</tr>
<tr>
<td>일화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241</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189</td>
</tr>
</tbody>
</table>

### 3. 뉴스평가

<table>
<thead>
<tr>
<th>프레임</th>
<th>인용 정보원</th>
<th>인용 메시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M</td>
<td>SD</td>
</tr>
<tr>
<td>주제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1.87</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1.90</td>
</tr>
<tr>
<td>일화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1.93</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1.90</td>
</tr>
<tr>
<td>프레임</td>
<td>인용 정보원</td>
<td>인용 메시지</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고품질</td>
</tr>
<tr>
<td></td>
<td></td>
<td>M</td>
</tr>
<tr>
<td>주제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4.36</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4.24</td>
</tr>
<tr>
<td>일화적 프레임</td>
<td>전문가</td>
<td>4.36</td>
</tr>
<tr>
<td></td>
<td>익명 네티즌</td>
<td>4.20</td>
</tr>
</tbody>
</table>